



알찬 내실 다진 己丑年을 보내며...

2009년
파노라마



<1월 8일> 신년교례회



<8월 20일> 장학금 수여식



<5월 16일> 미주동창회 시카고 평의원회의



<9월 7일> 제5회 모교 발전기금 모금 동문 골프대회



<7월 5일> 제6회 동문 바둑대회

2010년 庚寅年 신년교례회

새해를 준비하는 신년교례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0년 1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 회 비 : 없음
- 문 의 : (02)702-2233

* 한정된 좌석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악출추

2009년 동창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동문 1천명이 모인 신년교례회에서 중흥비전·도약플랜을 선포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각 단과대학별로 흩어져 있던 동창회가 연립상태에서 벗어나 통합시대로 접어든 지 40년이 됐다.

동창회에서는 모교 개교 원년 재조명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채택하고, 법관양성소가 출발한 1895년을 개교 원년으로 하기로 대학본부에 건의했다. 대학본부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대학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모교의 역사가 63년이 아

닌 114년으로 환원하게 된 것이다.

동창회는 모교 발전을 위해 모교 법인화 노력을 지원했다. 모교는 그동안 국립대학교의 하나로 인정돼 정부의 간섭을 받으면서도 재정지원이 적어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모교는 국립서울대학교 법인법을 만들어 인사·재정·교육·연구의 독립성을 갖춰

번창했던 한 해

세계의 10위권 대학의 진입을 기하고 있다. 동창회의 협조로 법인화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머지않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명실공히 세계의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동창회는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도 노력해 모교 발전에 기여했다. 동창회는 계속사업

의 하나로 모교 후배 장학사업에도 노력해 올해 6억2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동안 동문들의 성의로 마련된 장학빌딩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에 골조공사가 완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학빌딩의 내부공사가 끝나면 임대사업을 해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이 배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에는 예년에 하던 홈커밍 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열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바둑대회, 골프대회 등을 열었고 동창회 활동에 기여한 4명의 동문에게 관악대상을 수여해 총회를 빛나게 했다. 연말에는 세종시 문제가 나와 모교가 세종시에 제2캠퍼스를 건립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모교 법인화와 함께 모교와 동창회가 날로 번창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金哲洙노설위원)

느리나무광장

라면 한 그릇에 1백원 하던 시절을 얘기하면 후배들 눈이 둥그래진다. 그냥 라면은 1백원, 계란라면은 1백50원... 20년도 더 전인 1986년 서울대 학생회관 라면 값이 그랬다. 공장(공대식당)에서 여름마다 팔던 1백50원짜리 비빔냉면도 줄서서 먹는 명물 중 하나였다.

당시 서울대에는 은근히 명물이 많았다. 이태원 나이 트클럽 춤 대회에 나가서 당당히 2위에 입상, 보기에도 민망한 새빨간 스타킹을 부상으로 받아왔던 경영학과 단스제왕은 과짜나 명물 축에도 못 끼었다. 단과대별로 명물, 과짜들이 어김없이 한두 명은 있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그 때 학교 전체를 통틀어 누구나 다 아는 명물이라면 단연 ‘블루사이코’였다.

서울대 도서관 1층 명당에 자리잡고 앉아 지나가는 여학생들한테 관상도 봐주고 각종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블루사이코’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새파란 색으

로 휘감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파란색 바버리와 바지, 구두와 양말을 샀을까 의문이 들만큼 파란색 일색이었다. 자기의 사주팔자에 파란색이 이롭기 때문에 온몸을 파랑으로 감싸고 다닌다는 설명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블루사이코’의 속옷은 파란색일까, 흰색일까 내기했던 기억이 새롭다.

요즘 서울대에선 이른바 명물이나 과짜를 찾아보기 어

렵다고 한다.

20여 년 전만 해도 고2 혹은 고3 여름방학 때까지 학교 담장을 넘나들며 각종 과짜 짓을 서슴지 않다가도 정작 시험 때 바짝 공부해서 서울대에 당당히 입학하는 ‘과짜 천재’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소한 초등학교 5~6학년부턴 엄마의 지도편달아래 내신관리 엄격하게 하고 각종 외부대회 수상실적을 쌓아 놓지 않고는 서울대는 꿈도 꾸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 표현에 의하면 “받아쓰기만 잘할 뿐 2시간 강의 내내 질문 한마디 안 하는 표준형 ‘범생이’들만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봐도 서울대생들 특유의 반짝반짝하는 총기, 남다른 날카로움, 톡톡 튀는 발상의 전환 같은 장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푸념이 많다. 서울대 들어가기는 20년 전부터 5~6배는 어려워진 것 같은데도 서울대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짜, 천재, 명물이 사라진 서울대는 어려서부터 엄마스케줄에 따라 학원으로 뽕뽕이 도는 이 시대 입시전쟁의 결과가 아닐까. 새삼 입맛이 쓰다.

‘블루사이코’의 추억

蔡 耕 玉
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겨울 이야기

成 百 燁(국어교육69-73)시인

붓 터치 한 점 없이

하나님은 풍경을 바꾸신다.

이음새 없는四季

가슴 헤치며 불 붙여오던

봄꽃들은 어디에 숨었을까?

녹색 장원에 빠져 달게 줄다가

오색 단풍에 깜짝 놀라 깨어나니

찬바람에 떠는 나목가지 끝

초승달마저 얼어붙는다.

눈이 왔으면

집 떠난 바람은

마지막 잎새를 흔들며 하얀 길을 부르는데

개 짖는 소리 차가운 저녁

안온한 실내에선

도란도란 사이좋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다.

동문칼럼

얼마 전, 한 청소년이 친구를 시켜 집에 불을 질러서 부모를 청부살해하고 보험금을 타 강남에서 잘 살아보고 싶었다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앞에 무력해진 가족,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불행한 청소년들,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축돼 있는 이 사건은 안타까운 시대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우리는 기초질서와 예의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해 소통과 협력, 연대를 체험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감과 책임감 형성에 밑거름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깊은 믿음과 애정이 있는가? 행복한 얼굴로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함께 하는가? 함께 있으면 즐거운가? 아니, 함께 있을 시간이 있거나 한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고 위로받을 수 있는가? 가족이 내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소망하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나 결성한 시민단체가 ‘(사)가

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다. 필자는 이 단체의 대표로서 가족생활교육, 생활설계상담, 지역사회 품앗이 네트워크 구축, 행복한 가족놀이터, 좋은 부모되기 운동, 가족정책포럼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건강한 가족가치의 정립과 확산,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 가족 돌보미 양성 및 배출, 자녀 기르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등 가족을 넘어 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이슈를 개발하고 정책제안을 하며,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李 基 榮
(가정교육66-70)
모교 소비자동학부
교수

건강한 가정은 사회적 자본이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시대에 가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가족원 각각의 삶을 들여다보자. 자녀들은 학업과 사교육으로 인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며, 과중한 입시와 취업의 부담으로 짓눌려 있다. 늘어가는 맞벌이 가족은 일-가정 양립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기성세대는 평생직장을 보장받지 못해 불안감을 갖고 산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이미 다가온 고령사회, 노인문제가 표출되고 세대간 단절도 심화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다양한 문화와 삶의 양식이 공존하는 오늘날,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의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이 시대, 가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가정은 과연 악자를 돌보기에 적절한가? 아이들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술, 타인에 대해 배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도덕감 등은 생애 초기부터 가정에서 배우고 익히는 가치들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는, 최근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신뢰, 이타심, 도덕심, 배려, 협력 등 사회 자본의 중요 요소들이다. 즉, 가정은 사회적 자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체득한 이러한 가치들은 곧 사회로 연계되는 까닭에 사회문제와 가정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 가정생활에서 체득한 협동과 이타성, 되돌려 받음을 기대하지 않는 자발적 돌봄의 정도가 공동체의 문화적 수준과 복지를 결정한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노력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璫,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寅,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武,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드디어 위용 드러낸 장학빌딩!

상층 골조공사 마무리
내년 12월 완공 예정

‘동창회관은 과거의 소리가 음 악이 되는 시간이다.(중략) 오 라, 벚들. 母校의 학연은 배움의 인연. 그것을 보듬고, 뛰어넘는 전율을 이루자.’－金正煥(영문 72-80)시인의 장학빌딩 기공 축 시 ‘각인’ 중에서

2007년 6월 기공식을 가졌던 서울 마포 장학빌딩이 오랜 기다 립 끝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 다. 지난 11월 17일 현재 12층 바닥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 정율은 46%.

시공사인 임광토건 정해연 과 장은 “내년 2월쯤이면 골조공사 가 완료되고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 년 9월경 주변 조경 및 부대 토 목공사에 들어가 12월이면 국내 외 최대 동창회 건물인 ‘서울대총 동창회 장학빌딩(SNUA Schol arship Building)’이 완공될 것으 로 보인다.

장학빌딩 공사개요를 다시 복기 해 보면, 대지면적 1천6백31㎡, 건축면적 8백13.67㎡, 연면적 2 만1천2백77㎡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규모다. 최첨단 기술 및 고급 인테리어 자재가 적용되며 지하 6층~지하 1층 주차장(1백 50대 수용), 1층 갤러리, 2층 웨 딩홀, 3~4층 연회실, 5~17층 사무실, 18층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학빌딩이 들어서는 서울 마포 공덕동 부지는 천혜의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인근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동문들이 오가며 여가를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서 울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 대된다.

申英燮(경제74-79)마포구청장 은 기공식에서 “지하철 5·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지나가고 2010년경 신공항선과 경의선이 통과할 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광



화문이 10분 거리에 있는 최상의 요충지”라고 말한 바 있다.

건물이 완공되면 임대 수익금 등으로 지금의 4배, 연간 1천여 명의 재학생에게 20억원 이상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모교 교수들 에게 연구활동비로 20억원 이상 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장학빌딩 을 통해 모교 지원사업뿐 아니라 미술품 전시갤러리 등 문화공간

을 뒤 어떤 건물에도 뒤지지 않 으며 자랑할 수 있는 동창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00년, 200년이 지나도 견재해 손자 손 녀들을 데리고 방문할 수 있도록 준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4월 30일 장 학빌딩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건축설계·시공 분야 및 기계·전 기설비 분야의 전문가 8명을 건설 관리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장학빌딩 건축은 순조롭게 되 고 있지만 건립기금 참여자는 6 천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33만 동문 가운데 2%도 안 되는 숫자다.

장학빌딩 건립기금 출연자 현황 을 살펴보면 11월 18일 현재 기 금 출연자 수는 5천7백79명, 납 입 금액은 2백99억6천40여 만원 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공대 동문 이 1천77명(98억2천6백50만원) 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법대 6백5명, 상대 4백99명(사회대 경제학부 미포함), 농대 4백89 명, 사대 4백54명, 문리대 4백 33명 등의 순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과정에선 최고경영자과정 1백49명, 국가정책과정 83명, 최고산업전략과정 78명, 보건의 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49명 순으 로 조사됐다. 〈표 참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출연자 (단체포함)는 77명으로 이들이 총 납입한 금액은 2백51억9백만 원이다. 이는 현 납입 금액에 83. 8%에 해당한다.

특지장학금과

소액 모금 계속 추진

林光洙회장은 장학빌딩은 많 은 동문들의 참여 속에 건설되 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장학빌 딩 18층에 만들어질 ‘명예의 전 당’ 벽면 동판에 동문들의 이름 이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겠냐” 며 소액 모금은 계속할 것이라 고 말했다. 〈南〉

단대별 장학빌딩 기금 출연 현황

(2009년 11월 18일 현재)

단과대학	인 원	납입액(원)
인문대	99	46,125,460
사회대	158	45,850,184
자연대	134	218,025,992
간호대	44	117,900,000
공 대	1,077	9,826,494,496
농 대	489	734,891,378
문리대	433	4,683,987,373
미 대	119	139,725,092
법 대	605	1,928,279,736
사 대	454	1,962,269,724
상 대	499	3,537,165,945
생활대	83	15,619,197
수의대	75	78,919,196
약 대	174	1,021,432,590
음 대	125	31,750,000
의 대	284	2,657,613,424
치 대	189	1,204,519,799
대학원	78	115,140,000
경대원	16	72,430,000
교대원	3	700,000
보대원	31	204,649,197
언대원	9	4,020,000
행대원	46	22,150,000
환대원	8	800,000
AMP	149	307,826,000
AIP	78	714,000,000
ACAD	83	13,760,000
ABP	13	1,430,000
SGS	19	54,000,000
CHCN	1	1,000,000
APC	8	1,000,000
HPM	49	40,070,000
AMP	16	6,900,000
AIC	22	104,050,000
AFB	7	1,150,000
AMPFR	28	10,300,000
ACPMP	18	2,030,000
FIP	8	6,530,000
GLP	28	8,530,000
ALP	14	1,620,000
SPARC	2	4,500,000
기 타	4	11,247,824
계	5,779	29,960,402,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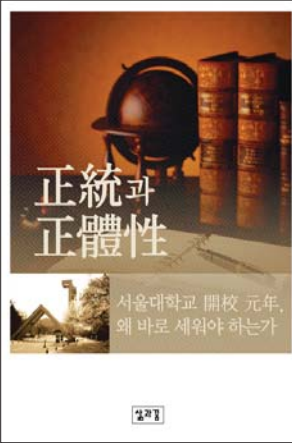
모교의 뿌리 찾는 ‘正統과 正體性’ 출간

본회는 지난 11월 30일 모교 의 뿌리를 찾아 자료를 정리한 ‘正統과 正體性－서울대학교 開校 元年,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삼과공刊)를 펴냈다.

이 단행본은 모교가 세계 10 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짧지 않은 우리 校史를 바로 찾 아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1 년간 철저한 연구와 진지한 난 상토론을 거쳐 취합한 자료들을 담았다.

특히 국내외 주요 대학의 개 교 원년과 한국 근·현대 국립고등교육기관의 변천사를 일목요연 하게 설명해 놓아 서울대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 록 편성했다.

아울러 본회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 명단, 모교 교수 명단, 역대 관악대상 수상자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명단 등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도 수록돼 있다. 〈양창·351쪽〉



관악회 108차 이사회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한국 언론재단 19층 국회실에서 제108 차 이사회를 열고 201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 러분과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순 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장학빌딩 건 설은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예 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도 여러 동문들께서 특지장학금을 쾌 척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 로도 특지장학금과 소액모금을 계 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도 예산안 의결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관 악회는 내년도 장학금 지원 사업 에 5억원, 장학빌딩 건립 사업에 1백41억1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모임에 林光洙이사장, 洪

性大상임이사, 孫一根·明泰鉉·李禮植·安聖哲·李炯均·朴明潤·金秉順·南益鉉이사, 朴英俊·金一燮감 사 등이 참석했으며 金炯珠·趙弼濟·申明珪·李吉女·張世一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12. 1 월
행사 캘린더

치대·치대원동창회

홈커밍데이 겸 학술대회 성황



행사를 준비한 金龍浩·權五洋·安彰英·洪禮杓·金顯淇·李鍾燁동문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洪禮杓)는 지난 11월 22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종합학술대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세 개의 강연장에서 펼쳐진 학

술대회는 골재생부터 임플란트 실패에 관한 임상연구, 지르코니아의 이해, 치과 의료분쟁 등 총 10개의 주제를 놓고 姜泰聲(치의학 71-77)·金聖悟(치의학 71-77)·咸炳道(치의학 75-81)·韓星熙(치

만 평

李元馥



의학 79-85)·金榮均(치의학 80-86)·卞鎬永(치의학 82-88)·朴相燮(치의학 88-94)·梁勝旭(치의학 89-95)·許守福(치의학 89-95)·安剛民(치의학 90-96)동문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모교를 방문한 3백여 명의 동문들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 강연을 들은 후 재학생들의 안내에 따라 새롭게 오픈한 치의학박물관, 신축 교육동 등을 둘러봤다. 이어 동문주점에 들러 오랜만에 만난 동기, 선후배들과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洪禮杓회장은 “생체재료 연구동에 이어 본관에 신축된 교육동은 최첨단 임상실습실과 세미나실 등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치의학박물관에는 국내 최대의 치의학 관련 유물이 전시 보존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60여 년 치의학 역사의 실체와 모교의 발전 모습을 확인하고 애교심을 한층 더 키웠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창회는 이날 회장 및 부회장, 각 기수별 회장, 시도지부장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의원회를 열고 치대원의 관악캠퍼스 ‘첨단교육 연구복합단지’ 신축을 위한 후원회를 구성했다.

화학부동창회

추계 등산대회 개최

화학부동창회(회장 金路中)는 지난 11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추계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등산대회를 위해 화경회를 비롯해 金鍾斗·崔東植·李允相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南)

뉴욕지부 골든클럽

李俊行회장 선임



뉴욕지부 골든클럽(회장 鄭澤洙)은 지난 11월 5일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회장에 취임한 李俊行(섬유공학 48-54 분회 부회장) 동문(사진)은 지난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모임을 이끌어온 鄭澤洙(정치 46-51)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60세 이상 동문으로 구성된 골든클럽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안동지부동창회

갈라산서 가을산행

안동지부동창회(회장 黃在文)는 지난 10월 31일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갈라산을 오르는 가을 산행대회를 가졌다.

등산로 입구에서 집결한 동문들은 박사골재-문필봉-누에머리를 지나 하산하는 2시간 30분 코스를 등반하며 친목을 다졌다.

또 이날 신입회원으로 모교 제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金奉顯(대학원 04-09) 부부한의원장이 참가해 동문들과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表)

제12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www.snua.or.kr)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2010년 1월 31일

2) 접 수 처: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6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10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제7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7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 천 인: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추천서: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 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a1969@naver.com)로 접수 시켜야 함.

2) 공적 자료: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 2010년 1월 31일

6. 수상자 발표: 2월 중순

7. 시 상 식: 2월 정기총회

8. 문 의: 02)886-2219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서양사학과동문회

학과 40주년 기념행사

서양사학과동문회(회장 尹承駿)는 지난 11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학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尹承駿회장, 모교 羅鍾一·李仁浩 명예교수, 裴永洙 학과장, 崔甲壽 교수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은 늦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교정을 돌아보고 선후배간 팁을 이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기념식에서 재학생 후배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이날 행사를 위해 특별회비를 기부한 메가스터디 孫主憲(서양사학81-87)대표, 벽산건설 김찬식(서양사학88-94)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양사학과동문회(cafe.naver.com/westernhistory40)는 지난 1999년 10월 창립돼 현재 7백56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다. 회장은 인하대 사학과 尹承駿(서양사학75-82)교수가 맡고 있다.

전북지부동창회

백제유적지 둘러봐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1월 7일 金聖吉회장, 黃鎬男부회장, 金亨燮총무, 金學壽

재무이사, 전북대 金采元·崔鍾範 교수 등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와 공주, 전북 익산 등의 백제유적지를 탐방하는 가을여행을 다녀왔다.

이날 모임을 위해 전주대 李南植(농화학74-78)총장이 버스 두 대와 기념품을, 金聖吉회장이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ACAD동창회

뫣世勳서울시장 특강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廷益)는 지난 10월 28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2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뫣世勳(SCS 7기)서울특별시장장이 강연자로 초청돼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동창회는 분기별 조찬 세미나, 골프 및 등산대회 등을 통해 2전3백여 명의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AMPFRI동창회

말레이시아 해외연수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11월 20~24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申一汕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다양한 토속음식과 관광을 즐기며 동문간 우의를 다졌다.



SPARC동창회

田桂兆동문 골프 우승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洪起南)는 지난 11월 14일 전북 고창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대회를 위해 고창CC 朴昌烈(13기)회장이 행사비용 일체를 협찬했으며 洪起南회장이 3백만원, 金成洙(1기)·鄭運鎬(9기)·裴斗植(12기)고문, 金權震(12기)수석부회장, 崔圭八(제약70-74·5기)·鄭鉄鍾(6기)·田桂兆(10기)·李珪洙(15기)부회장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지제이산업 田桂兆대표 ▲메달리스트 :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崔圭八소장 ▲준우승 : 캠택 沈裁晟(12기)대표 ▲최다 버디상 : 성신화학 金權震대표 ▲최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11월호(제380호) 2면 ‘느티나무 광장’ 칼럼 내용 중 ‘해동육통’은 필자의 인용 착오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 지난 10월호(제379호) 17면 ‘정년교수 프로필’에서 제작상의 실수로 지구환경과학부 金坵교수의 사진 대신 물리천문학부 洪承樹교수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두 분과 동문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과상 : 리드웨이건설 鄭鉄鍾회장 ▲니어리스트 : 세무법인 탐코리아 李珪洙대표 ▲룽게스트 : 삼송마그마 黃錫律(14기)대표

토목공학과동창회

‘올해의 동문상’ 시상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趙景遠)는 지난 11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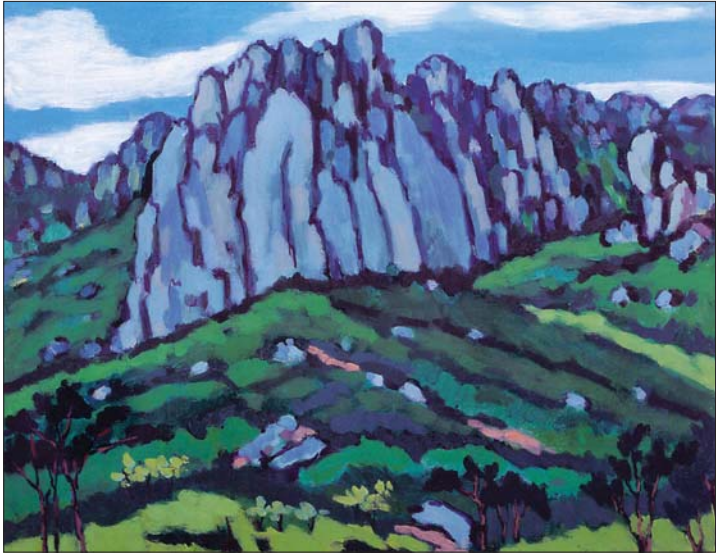
33회 동기회(대표 金善垣)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李璫衡원로동문을 비롯해 趙景遠회장,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徐慶德학부장 등 3백5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창회는 이날 ‘올해의 동문상’ 수상자로 대한토목학회 片宗根(토목공학66-70)회장, 동부건설 건설부문 李淳柄(토목공학68-72)대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沈名弼(토목공학69-73)추진본부장, SK건설 플랜트담당 崔光鐵(토목공학73-77)사장을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이어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재학생 2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33회 동기회에서 식사 및 기념품 등을 협찬했다. 〈南〉

동문 작품 지상전시회

李在漢作



‘도봉산’, Oil on Canvas, 53×41cm, 2007.

〈작가약력〉

▲58~65년 모교 회화와 졸업
▲75~09년 모교 미대 58동문전

▲한국풍경화가회전
▲서울대 50·60주년 기념전

‘도전정신과 사회적 책임’ 전하러 교수로 변신

동문을 찾아서

安哲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

국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든 ‘최초’의 사람. 백신 프로그램과 컴퓨터 바이러스 소스를 세계에 공개하고, 7년간 무료로 나눠준 ‘사회적 책임을 아는’ 사람. 해외에서 1천만 달러를 주겠으니 기업을 넘기라는 제안을 단번에 거절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 벤처계의 신화로 정도경영을 실천한 ‘투명한’ 사람. 28년간 부족한 것을 배우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 KAIST 安哲秀(의학80-86)석좌교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 하다.

그를 지난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안철수연구소에서 어렵사리 만났다. 분·초를 다루는 그의 빡빡한 일정을 보며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할 새도 없이 안교수는 하나를 던지면 하나를 덩으로 더 얹어주는 내용으로 화답했다.



대답 : 본보 李相起논설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어젯밤 두바이에서 귀국해 아침 7시 반에 조찬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1시부터 안철수연구소 신입직원들과 간담회, 12시엔 Working Lunch 회의, 1시부터 연세대 학생들과 만날 예정이고, 2시에 대학교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내려가 5시부터 시작되는 학과 설명회에 참석해야 돼요.”

— 식사는 하시나요.

“(웃음) 네. 그 이후부터 책을 쓰거나 개인적인 일을 주로 합니다. 안철수연구소 CEO일 때 책 10권을 집필했는데, 자투리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못 썼겠죠.”

— 오늘 신입사원과 학생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계획이세요.

“흔히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제가 답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창의력은 좋은 질문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만드는 데만 익숙하지 좋은 질문에 대한 가치나 질문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실력 있는 경영자인데, 좋은 답을 하는 사람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니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질문을 진짜 잘해야겠네요. 아이고 부담스러워라(웃음). 얼마 전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만족하셨나요.

“그날 네 시간을 촬영했는데, 방송에 나온 건 한 시간이었어요. 심각한 내용은 많이 잘렸고(웃음), 가벼운 터치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제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젊은 사람들이 도전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도 한번 돌아보는 사회적 책임을 알리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는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안교수가 지난 2005년 안철수연구소 CEO에서 물러나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받고 KAIST 석좌교수로 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 여기까지 오게 해준 인생의 멘토는 어떤 분들인가요.

“그동안 제 직업을 보면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영자, 작가 그리고 현재는 교수로 있으니 다섯 개인데, 책을 통해서 직업별로 롤모델을 많이 접했습니다.”

안교수는 술, 담배, 골프를 하지 않는다. 이에 버금가는 취미는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정도. 그래서인지 인터뷰의 절반은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가득했다. 지루하게

수가 저렇게 많았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 한두 분 소개해 주세요.

“창업마케팅을 가르치는 랜 로디쉬 교수님은 뛰어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창업도 하시면서 서른 개 정도의 회사를 직접 도운 분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사업계획서를 들고와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수표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창업할 생각이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당장 거기에 올인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학생은 일종의 창업지원금을 받아 열심히 회사

의사·프로그래머·CEO·작가 등 이력 다양

“합당한 일에 자신의 능력 발휘하세요”

安哲秀석좌교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1986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모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취미로 다뤘던 자신의 컴퓨터가 ‘브레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을 개발하면서 그의 운명은 바뀌었다.

1995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해 CEO를 지내면서 199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및 와튼스쿨에서 기술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

미국 스탠포드대 벤처비즈니스과정을 수료했다. 통합보안전문업체로 성장시킨 ‘안철수연구소’를 10년간 이끌어오던 지난 2005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200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2008년 5월부터 KAIST 경영과학과 및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동문인 부친 安英模(의학50-57)법천의원 원장과 부인 金美暎(의학83-87)KAIST 의과대학학원 겸임교수, 미국에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두었다.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도전정신과 심지있는 철학 그리고 겸손함이 책과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실패할 것을 막았다’고 할 분이 있다면.

“교수로서 저의 롤모델들은 와튼스쿨 시절의 교수님들인데, 제 평생 처음으로 ‘교

를 운영했고, 이를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이 소개되면서 알려지게 됐죠.

또 다른 교수는 변호사 시절에 경영이 부실한 회사를 매입해 잘 성장시켜 이를 되파는 Private Company Acquisition을 주로 담당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신 분이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아 와튼

스쿨에 오셨는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는 말처럼 자신의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돕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스를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은 터키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며 국영기업을 매각하는 사업에 참여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그 경험들을 강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강의를 하니 까 배움의 깊이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 안교수의 저서에는 이런 현장 이야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의 생을 현장에서 보낸 사람이지만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강조하지는 않아요. 저는 고생했다고 토로하거나 성공했다고 떠벌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현장 경험담을 하면 결국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됐다는 얘기 밖에 안되니 잘 안 하는 편이에요.”

— 열한 번째 책은 언제 나오나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은 ‘경영자가 잘못 알기 쉬운 경영상식 50가지’(가칭)입니다. 다시 찾은 와튼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지난 10년간 CEO를 했는데 제가 반대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묵하다 메모를 하나씩 50가지 정도 돼요.”

아직 발간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공개해 누가 인용하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주제가 다른데요”라고 가볍게 넘겼다.

“기업가 정신”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를 ‘경영자 정신’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경영자 마인드가 아니다’라고 썼어요. 또 하나는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먼저 진입해 제품을 팔아야 성공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엉성한 제품을 내놓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이사회 때 어느 기자 분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사회가 경영기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사회는 경영기구는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강의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방학동안에 마무리짓고 내년 초에 발간할 생각입니다.”

—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소설책 보는 재미에 빠져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소설만 읽다가 의대시절엔 전공서적과 컴퓨터 관련 책들, 경영지일 때는 경영서적을 많이 봤었는데 작년부터 어릴 때처럼 소설책이 손에 많이 잡히는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도 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孔枝泳씨의 ‘도가니’도 읽었고, 제임스 패터슨의 원작소설들도 봤고요. 또 스웨덴 작가인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을 읽었는데 깊이 있고 좋더라고요.”

— 책은 출판사 서평을 보고 고르세요.

“좋아하는 작가들의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사서 봅니다.”



“좋은 질문 던지는 사람이 실력 있는 경영자”



— 어떤 작가들인가요.

“‘티핑 포인트’, ‘블링크’ 등을 저술한 뉴욕 칼럼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의 작품은 다 읽니다. 이번에 1년만에 책을 냈는데, 제목이 ‘What the Dog Saw’예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경험하고 싶은 속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의사생활을 드라마나 소설로 만들면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용인데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또 토머스 L. 프리드만의 책들은 대부분 좋아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는 존 그리샴, 그리고 이번에 마이클 크라이튼의 마지막 유작이 나오는데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안교수의 상상력은 독서에서 나온다고 봐도 되나요.

“요즘엔 안 그런데, 어릴 때는 책의 줄거리는 보지 않고 작가나 주인공의 입장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더 흥미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왜 그랬을까’하고 사람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니 다 읽은 다음에는 누가 줄거리를 물어보면 기억이 안나요(웃음). 저는 책의 이야기들을 당시에 제가 처한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경영을 할 때 조직생활을 한 번도 이끈 경험이 없는데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 교수 다음 직업은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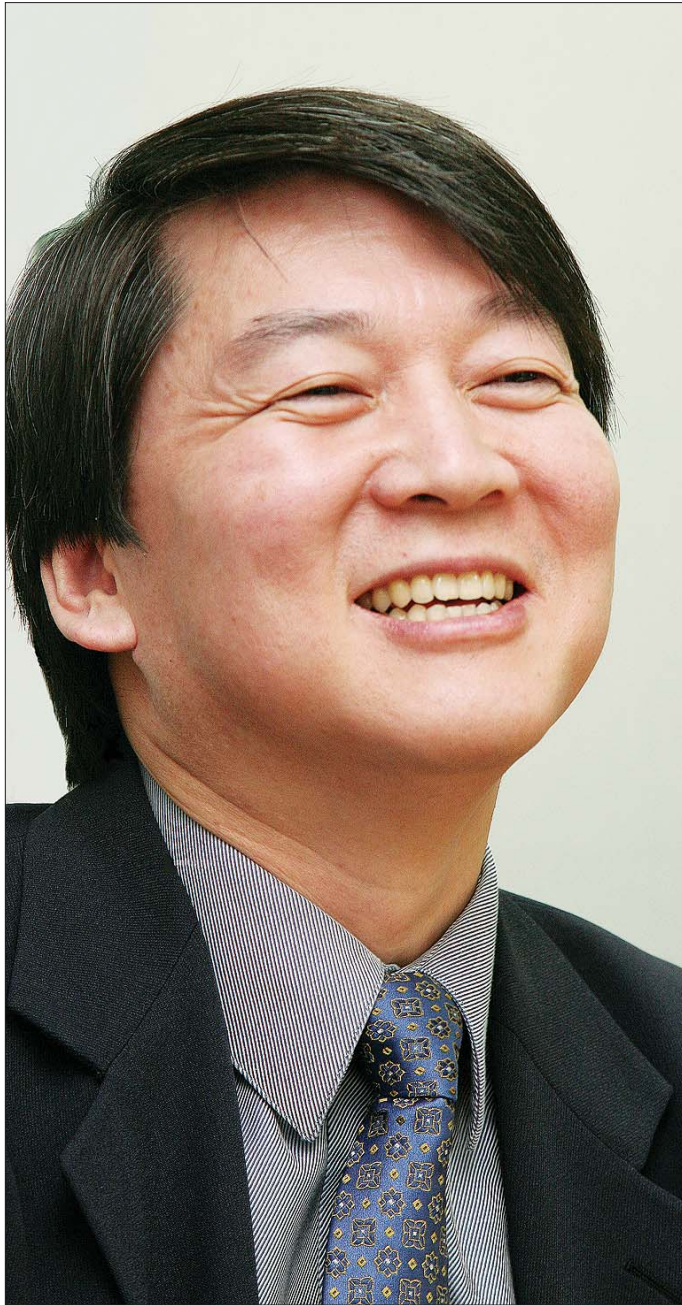
“현재의 일이 저에겐 가장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대학강의만 하기 위해 교수직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외부강의만 백 번 정도 했습니다. 한 학기에 백 번이니까 5년간 하면 천 번이잖아요. 그 정도 하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릎팍도사’에 나간 것도 이런 이유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서 지금은 외부강의를 잘 안 합니다.”

— 외부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카네기멜론대의 랜디 파우치 교수가 마지막 강의에서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강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우선 안철수 연구소에서 10년간 경험한 내용과 컴퓨터 보안 강의를 비롯해 대학생들이 컨버전스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는 이유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 10개 정도 됩니다.”

—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은.

“결국 인생에서 안정이란 것은 없으며, 인생의 본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안전한 것 같지만 결코 안정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보잖아요. 제가 와튼스쿨을 졸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 취직했지만 반년도 안 돼서 금융위기로



“책이 큰 스승... 말콤 글래드웰 저서 꼭 읽어”

내년초 ‘경영자가 잘못 아는 경영상식’ 발간

많이 하고되더라고요.”

— 그렇다면 대학교에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세요.

“제 수업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을 요약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기업가 정신’ 강의에서는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던집니다. 첫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 둘째 어떤 사람들이 기업가가 돼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답을 찾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 학기동안 Harvard Business Case 7개와 책 4권을 읽게 하고 기말리포트로 ‘내 인생의 비즈니스 플랜은 무엇인가’를 작성하게 하는데,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산을 정복할 때 사실 정상에 있는 시간은 짧고, 대부분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상만 보잖아요. 나머지는 인고의 과정인데... 그래서 그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하죠.”

— 앞으로 20년 뒤에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되돌아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왔고요. 후회할 일들도 있겠지만, 괜한 감정소비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자만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기사들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무릎팍도사’도 몇 달 후에 한 번 봤어요.”

—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바 있는데.

“지난 2001년 모교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주셨는데, 저를 선정할 때 말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인데, 이 상을 주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상이 부끄럽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들도 병행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회사 업무를 적용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대기업에서 정년 퇴임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문가들을 멘토로 활용하는 것이죠.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위기의 크기에 비해 문제의식이 분산돼 있어서, 즉 해법이 너무 제각각인 것이 진짜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경제위기지만, 5년 내에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대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환란 때 증명됐듯이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은 서로 공존해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1백30만명, 공무원이 약 1백만명인데, 나머지 4천만명은 어디서 먹고 살아야 하나요? 대기업이 국내에서 상당부분의 이익을 내면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국내 소비자가 사졌기 때문에 기술이 안정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 2010년의 목표는.

“이곳 KAIST에 와서 과학자나 엔지니어 학부생들에게 경영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준 것이 굉장히 보람되고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기술투자는 많은데 상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보니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정부가 깨닫고 엔지니어들을 훌륭한 기업가로 육성시킬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세우는 데 지원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 첫 신입생을 뽑았고, 내년부터 강의를 예정입니다.”

— 동문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원하는 원치 않든, 이왕 갖게 된 능력은 합당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저도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봐주셔서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혜택에 상응하는 일을 해내거나 그만큼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고 할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安哲秀’는 왜 ‘安哲秀’입니까.

“사실 제가 가진 모든 생각들은 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엮여서 제 생각처럼 자리잡게 된 것 같습니다. 독일의 문호 마틴 발저가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한 것처럼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表智媛기자)

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朴婉緒선생님과 함께 인촌상을 받을 때 ‘이 상을 별로 생각하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 연구소 입구에 보니 여기저기서 받은 훈장, 아니 ‘별장’이 많던데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전주의 어느 조그마한 시민학교에 강의하러 간 적이 있는데, 강의료를 안 받으니까 이분들도 너무 미안하니까 강연 도중에 어디서 구했는지 고구마 한 상자를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제 딸이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 고구마 한 상자를 부부 둘이서 석 달 동안 정말 맛있고 고맙게 먹었어요. 그런 게 훈장이죠. (웃음)”

벤처기업가이자 차세대 리더로서 한 마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 벤처기업의 신화이신 만큼,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것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디지털 싱글앨범 ‘리-하트’로 인기

모교 출신으로 다재다능한 동문들이 많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음악칼럼리스트로 활동하는 동문, 만화가 겸 록밴드 리더, 치과원장 겸 주역전문가. 특히 노래를 잘 불러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동문이 많다. 최근 4집 앨범까지 낸 鄭斗彥(무역76-80) 국회의원, 노래하는 CEO로 유명한 李廷湜(지구과학교육72-76)前CBS 사장, ‘아파도 사랑합니다’의 李枝英(치의학92-98) 치과원장이 그들이다.

법무법인 세종 李丞敏(독문97-04)변호사는 이런 계보를 이어 받아, 그 이름아래 밑줄 짝 굵게 하는 매력적인 동문이다.

최근 ‘리-하트(Re : Heart)’란 디지털 싱글앨범을 내고 ‘도시락’, ‘멜론’ 등 각종 음악사이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어지간한 가수에게는 곡도 안 주기로 소문난 작곡가 박근태 씨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근성과 맺집이 앨범 작업을 하는데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높이 평가한다”며 직접 트레이닝을 맡아 앨범제작을 돕기까지 했다. 신인 가수는 李동문이 처음이라나.

음악통해 강렬한 에너지 충전

지난 11월 18일 서울 순화동 한 식당에서 만난 李동문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소개되는 동창회보에 얼굴을 비치게 돼 쑥스럽고 조심스럽다”고 첫 말을 꺼냈다. 李동문의 부친 李采郁(AMP 54기)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근무지인 세종과 클라이언트 가운데 동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듯했다.

“변호사로 일할 때는 ‘100% 이승민 변호사’로 보이기 위해 노래 이야기는 물어봐도 잘 안 해요. 혼동해서 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이승민’이란 가명도 그래서 만들

었고요. 그래야 두 가지 일 모두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 일처럼 가수활동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바쁜 세상에서 李동문을 잡아 끈 음악의 힘은 무엇일까.

“음악을 통해 받는 위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들으면서, 부르면서 채워지는 강렬한 에너지가 있어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웃음),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를 주고 싶어서 직접 노래를 부르게 됐죠.”

가수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李동문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선 공중과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야 하지만 업무상 제약이 많이 따른다. 실제로 몇 번 제의가 들어왔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출연을 고사했다.

“일주일에 하루는 피카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변호사 일이 무척 바빠요. 지금도 제출해야 할 서류를 급하게 정리하고 왔어요. 가수를 잠깐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갈 생각은 없어요. 공중과 방송은 인기를 얻는데 효과적이겠지만 노래가 좋으면 너더라도 반응이 올 것이라 믿어요. 천천히 음악적 내공을 쌓으면서 좋은 노래를 계속해서 발표해야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에 두 일을 이미 선택했고 둘 다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어 답하기 어렵단다. 李동문은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지난 2007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국제분쟁 업무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가 가수 활동까지 하니 클라이언트 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없는지 궁금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오랫동안



안 함께 일을 해 온 분들이라 가수 활동에 대해 놀라기는 해도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핸드폰 컬러링을 제 노래로 하라고 강요하죠(웃음). 세종의 업무 퀄리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 역시 업무에서는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논리만 있고 열정이 없으면 고객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노래동아리 ‘쌍투스’가 밑거름

한영외고 독일어과를 나와 1997년 모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한 李동문은 군대를 다녀온 남자 동기들보다 더 늦은 2004년에 졸업했다. 학점이 낮았기 때문. 사법고시를 통과한 재원이 학점 때문에 졸업을 늦게 했다니 의외다. 그래도 오래 다닌 덕분에 모교에 대한 추억은 많단다.

“도통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독문과 정원이 30명인데 무척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위아래 5년 터울 선후배하고도 친하게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과에서 하는 장터, 농활은 모두 참여했죠. 총학 선거 때 ‘미래창조’란 팀을 돕기도 했어요. 아카데믹한 삶과는 멀었지만 낭만적인 대학생 활이었죠. 요즘도 가끔 자하연 식당 김치가 그리워요. 맛이 최고였거든요.”

대학시절 노래 연합동아리인 ‘쌍투스’ 활동도 열심이었다. 지금 李동문의 앨범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돕고 있는 최광호 씨도 쌍투스에서 만난 선배다. 최광호 씨는 “당

시에도 같은 가수 중 노래를 가장 잘하는 후배였다”고 전했다. 쌍투스는 공연을 앞두고는 방학을 반납해야 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시키는 동아리였다. 그곳에서의 훈련이 지금 가수로 활동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마법의 성’으로 유명한 김광진 씨도 쌍투스 출신. 김광진 씨는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음악적 성취도 이뤄낸 좋은 선례다.

“쌍투스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광호 선배가 아니었으면 가수에 대한 꿈만 꾸고 이리저리 헤매다 포기했겠죠. 다행히 선배가 음반산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열정을 다해 노래하고 일하다 보면 저 역시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믿어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한두 시간의 보컬 연습도 빼먹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표한 곡은 총 네 곡. 李동문 홈페이지(www.cyworld.com/incrediblywistful)에 들어가면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 곡을 더 내고 내년쯤 정식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다.

李동문은 성악을 전공한 어머니의 목소리와 ‘열정의 전도사’로 유명한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았다. 위로 언니 두 명이 있고 지난 2007년 崔誠洙(사법94-99)동문과 결혼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이 연말연시 모임에 초대하면 갈 수 있느냐는 물음에 “영광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허락되면 가겠다”고 약속했다. 〈南〉

신 품 제 약(주)

신품제약(주) 張龍鐸(약학55-61) 회장이 지난 10월 21일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 2억원 출연을 약정했다. 張회장은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모교를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총동창회 林光洙회장님과 임원들의 노력에 비하면 약소하다”고 겸손의 뜻을 비쳤다.

순수 국내 기술로 신약 완제품을 만드는 데 일생을 바친 張회장을 지난 11월 12일 서울 강남의 신품제약빌딩에서 만났다.

말라리아치료 신약개발

“제약산업 시장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자체가 다른 전자·건설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시장도 좁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더 심했습니다.”

‘민족의 슬기와 금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기업이념 아래 1962년 6월 5일 설립한 신품제약은 의약품의 개발·원료·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했을 당시 많은 국민들이 기생충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구충제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 약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됐죠. 그때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를 통해 자체기술로 개발한 기생충 약들을 저개발국가나 아프리카, 중국 등에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WHO의 지원을 받아 이번에 신약이 나오게 됐습니다.”

WHO는 차세대 말라리아치료 신약

개발을 위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과 세계개발은행, 빌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말라리아 의약재단(MMV)과 신품제약의 기술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말라리아는 인도·아프리카·중남미·동아시아에 이르는



張龍鐸 회장

고 있고 매년 5억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신약 개발에 들어간 신품제약은 2002년 다년간 축적된 약의 원료와 기술로 신약개발을 완성, 6여년간 국내외의 임상

시험을 거쳐 진행된 결과 치료율 99.9



말라리아치료제를 생산하는 경기도 안산의 다목적 원료 공장

순수 자체기술로 세계적 의약품 제조

2천만불 수출의 탑·국민훈장 목련장도 수훈

기까지 많은 감염성을 가진 질병입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25억만명의 인구가 감염지역에 거주하

%로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PYRAMAX)’를 개발했다. 신품제약은 세계에

서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말라리아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2008년 경기도 안산에 유럽연합 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EU-GMP)에 적합한 다목적 공장을 준공했다.

신품제약은 세계적인 신약개발 연구와 더불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1988년 아프리카 수단에 완제품 생산회사 ‘GMC’를 설립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8년부터 뇌졸중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1995년 중국에 ‘천진 신품제약’을 설립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 최초로 중국의 까다로운 GMP 시설인가를 획득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 의약품시장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신품대우파마 베트남 제약회사’를 비롯해 미얀마의 마케팅 전문회사 등 해외에 3개의 현지 법인체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동남아 3개 생산공장 가동

신품제약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신속히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4년 제약업계 최초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으며 1986년에는 1백만불 수출의 탑, 1992년 1천만불 수출의 탑, 2005년 2천만불 수출의 탑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해외기술이나 제품을 그대로 도입하는 외부기술 의존 회사가 아닌 신품제약은 모든 원료의약품에서 완제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창립 때 목표 그대로 국민보건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민족 제약기업으로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품 개발과 공급에 앞장설 것입니다. 동문들도 이번 장학빌딩 사업처럼 서로 힘을 합쳐 국가발전에 더욱 힘쓰길 바랍니다.” (榮)

공과대학 ‘해동학술관’ 기공

金貞植동문 35억 출연...내년 완공

모교 소식

지난 11월 19일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32동 건물 전면 주차장에서 ‘해동학술관’ 기공식이 열렸다. 해동학술관은 해동과학문화재단 金貞植(전자공학48-56 대덕전자회장)이사장이 35억원을 출연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식사에서 “공대와 농생대, 자연대가 어우러진 중요한 자리에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금을 쾌척해주신 金貞植이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金貞植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예전에 기증한 도서관에서 후배들이



胡文赫·孫一根·金夏爽·林光洙·李長茂·金貞植·姜泰晋동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며 보람되고 기쁘게 느꼈다”며 “많은 학생들이 학문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지식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金이사장께서는 국내 최초의 전

‘환경지속가능발전研’ 출범

발전위원장에 李承漢동문 임명

모교는 지난 11월 23일 관악캠퍼스 미술관(MoA) 2층 강의실에서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연구소 설립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뜻깊은 발걸음”이라며 “AIEES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의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정책과 전

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구소 발전위원장에 흠플러스그룹 李承漢(SGS 11기 SGS 동창회장)대표를 임명했으며 국토연구원(원장 朴良浩 지리71-75), 사회공헌재단인 ‘흠플러스 e과관재단’과 파트너십 조인식을 가졌다.

신임 李承漢발전위원장은 “흠플러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5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



崔甲洪한국표준협회장, 李承漢·金基浩·李長茂·李萬儀·金信福·金夏爽·朴龍來·朴良浩동문

로 서울대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한 녹색성장 정책과 전략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EES는 다영역간의 통합적 연

구, 인적·지적 인프라의 네트워크,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적인 연구소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장기적으로 융합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모교 교과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그린 리더 양성교육 및 연구결과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초대 소장이인 환경대학원 金基浩(건축65-69)교수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대학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본부직할 연구기관으로 설립하게 됐다”며 “연구결과를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역사회, 기업, 외국 정부 기관 등과 공유하고 실천해 지속 가능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말했다.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개관

농식품생명공학 연구 활성화

모교는 지난 11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200동) 부근에서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개관식을 가졌다.

이 건물은 지난해 산학협력 및 융·복합 연구를 위해 SPC그룹(許英寅회장)이 50억원을 출연해 완

공됐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식사에서 “우수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 환원을 지향하는 추세에 따라 실용적 교육과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 연구동은 모교의 산학협력을 위한



朴恩雨·韓仁圭·金夏爽·金信福·李長茂동문, 許英寅회장 부부, 허진수 상무, 사니 曹尙鎬사장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許英寅회장은 축사에서 “서울대학교와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원

대한 비전을 함께할 것이며, SPC는 식·음료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구동은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식물병원·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SPC그룹 식품생명공학연구소가 입주해 농식품생명공학 분야 및 산학협력 연구 활성화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언론인회 임원초청 간담회

‘도약과 혁신’ 위한 법인화 논의

모교 李長茂총장이 지난 11월 16일 한국언론재단 매화홀에서 관악언론인회 간부 및 언론사 선·후배 동문들을 초청해 모교 법인화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朱鍾南기획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李長茂총장은 “이제는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한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선 법인화가 반

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법인화 법률이 전 국민적 공감 속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시행되도록 법인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관악언론인회 文昌克회장은 “오늘 모임은 언론계 동문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서

울대가 국가경쟁력에 더욱 이바지하고 발전하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 법인화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리더로서 좋은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모교 법인화위원회 위원장인 金信福부총장은 법인화 추진 경과를 소개하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는 합의가 됐으나 재산 및 예산 문제, 공무원 신분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조정 중”이라며 “학생들이 저렴한 등록금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법인화가 되더라도 국립대 본연의 사회적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인화 이후의 대학운영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모교가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동문들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表)



총동창회배 교교동문 야구대회

16개팀 출전...국사학과팀 우승

지난 11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제16회 총동창회장배 교교동문 야구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본회 朴鸞壽사무총장은 林光洙회장을 대신한 격려사에서 “스포츠의 정신인 정정당당함과 도전정신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 갈 수 있다”며 “이 정신의 토대 위에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반이 탄탄한 건물처럼 건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사무총장이 야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야구부 민영기 차기주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시구를 했다.

이번 대회는 16개팀 3백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12월 2일까지 각축전을 벌였으며, 국사학과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榮)

‘총장 후보 초빙위원회’ 구성

모교는 내년 5월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월 12일 ‘서울대 총장 후보 초빙위원회(초빙위)’를 구성했다.

초빙위는 학내인사 7명과 학 외인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30일 위원장에 화학생물공학부 李鎬仁(응

본회 林光洙회장 등 학내·외 인사 13명

용화학66-70)교수가 선정됐다. 초빙위는 내년 4월 중순까지 3~4명의 총장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내인사：△李鎬仁교수 △물리천문학부 李峻圭(물리67-71)교수 △디자인학부 權寧傑(응용미술69-76)교수 △인문대 邊昌九(영문70-74)학장 △농생명공학부 李仁源(농생물70-74)교수 △신경외과학교실 王圭彰(의학73-79)교수 △소비자이동학부 余禎星(가정관리83졸)교수

학외인사：△본회 林光洙(기계공학48-52)회장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趙完圭(생물48-52)상임고문 △대한민국학술원 金商周(금속공학49-56)회장 △경원대 李吉女(의학51-57)총장 △한국과학기술원 李仁浩(사학55입)석좌교수 △모교 경영학과 郭秀一(상학59-63) 명예교수



관악캠퍼스 ‘민주화의 길’ 조성

“민주열사 동문들 늘 기억할 것”

모교 관악캠퍼스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거둔 19명의 학생들을 추모하는 ‘민주화의 길’이 조성됐다.

모교는 지난 11월 17일 중앙도서관 부근 故 朴鍾哲 추모비 앞에서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민주화 열사의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의 길’ 조성 기념식을 가졌다. ‘민주화의 길’이란 관악캠퍼스 두레문에관과 규장각 사이에 있는 4·19공원에서 시작해 인문대, 중앙도서관, 자연대를 지나 농업생명과학대까지 총 1.2km의 길을 말한다.

李長茂총장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과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위해 많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 길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

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6·10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서울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를 발족한 모교는 올해 3월 조성공사를 시작해 곳곳에 흩어진 추모비들을 길 가까이로 옮기고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료들을 수집해 왔다.

모교 민주화의 길 추진위원회 曹興植(사회사업72-76·사회복지학과 교수)위원장은 “11월 17일 국가가 정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朴鍾哲동문의 부친 박정기 씨는 “학문탐구를 위해 학교에 들어왔다가 소식도 없이 사라진 학생들이 많았다”며 “서울대가 이를 기억해주고 민주화 교육을 시켜주니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영대학

첫 ‘경영인의 밤’ 행사

경영대학(학장 安泰植)은 지난 11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제1회 ‘경영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경영대와 옛 상과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MBA 졸업생, 특별과정 수료자 등 6백여 명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 발전을 기원했다.

군악대 Brass Band의 힘찬 개회 연주에 이어 CJ그룹 孫京植(법학57-61·AMP 23기)회



安泰植·朴永浩·金英大동문

장, 대성그룹 金英大(행정61-65·경대원68-70)회장, 노동부 任太熙(경영76-80)장관이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 SK홀딩스 朴永浩(상학67-71)사장에게 ‘경영인

대상’을 시상했으며 동문들의 소모품을 모아 전시회를 마련했다. 상과대 학부터 경영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동문들이 전시회의 다양한 사진 및 석제 현관, 학생회 기념품 등을 둘러보며 경영대 역사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대학은 2007년 ‘동문과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를 주제로 비전 선포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세계 10위권 단과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연구대상 등 시상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朴憲雨)은 지난 11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2009년 상록농업생명과학 연구대상(이하 상록연구대상)·학술상·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17회 상록연구대상 수상자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朴承禹(농공학67-71)교수, 9회 학술상 수상자에 농생명공학부 黃仁奎(농생물76-80)교수·산림과학부 金顯中(임산가공83-87)교수, 제7회 교육상 수상자에 농산업교육과 鄭喆永(농업교육77-81)교수



鄭喆永·朴承禹·黃仁奎교수

가 선정됐다.

상록연구대상은 1991년 농생대 동창회 韓仁圭(축산학52-56)회장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에 출연한 1억원과 올해 3월 추가로 출연한 1억원을 재원으로 해 농생명과학 분야 연구·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이번 상록연구대상을 수상한 朴承禹교수는 농업수자원 및 비점오염관리 분야 연구로 학문발전과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상을 받은 金顯中교수는 바이오복합재료, 접착과학, 도료물성 분야 연구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백72편을 게재했으며, 黃仁奎교수는 식물병 발현 제어 연구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뤘다.

교육상 수상자인 鄭喆永교수는 농생대 학생부학장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榮)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기숙사 조감도

발전기금 50억 이상 출연자 명의로 신축 기숙사 7개동 헌정 캠페인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내년 6월까지 50억원 이상의 기부자 중 7명을 선정해 2010년 7월에 신축될 기숙사 건물 이름을 기부자 명의로 헌정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명문대의 교육, 문화, 공동체 기능이 복합된 거주형 캠퍼스들이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됐다. 그 예로 1983년 존 템플턴(John Temple-

ton)경의 기부로 세워진 영국 옥스퍼드대의 템플턴 칼리지, 토마스 카봇(Thomas Dudley Cabot)이 기부한 미국 하버드대의 카봇 하우스 등이 있다.

공사 중인 관악캠퍼스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운동장,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실, 동아리실, 헬스장 등을 갖추고 생활지도, 명사 강연 등 주거·교육 기능을 겸한 복합기능이 수행된다.

발전기금은 ‘핵심 모금 사업’ 용도로 50억 이상을 출연한 기부자 7명을 선정해 각각 기숙사 1개동을 헌정할 방침이다. 〈문의 : 871-1620〉

핵심 모금 사업은 다음과 같다. △초일류 인재육성 △대학 국제화 △글로벌 학문 육성(아시아연구센터) △사회 기여 확대 △사회정책 기능 강화(환경, 금융, 통일, 고령화 등) △학문 인프라 구축(도서관, 기금교수, 장학금)



약학대학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 개최

약학대학(학장 徐永鉅)은 지난 11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 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발전기금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徐永鉅학장은 환영사에서 “약대는 신약 개발 기초이론과 실제 응용력을 겸비한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동문들과 약대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약학대학은 이날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 ‘PHARMA VI-

SION 2020’를 선포하고 신약개발과 산학협력 체계를 위한 ‘신약개발센터’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약대는 지금까지 발전기금 35억원을 모금했으며 신약개발센터 설립, 연구기반 확립, 글로벌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10년까지 2백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6백여 명의 기부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기업·개인별로 발전공로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기업 : 환인제약(대표 李桂官 약학70졸), 건일제약(대표 金鎔玉) △개인 : 崔英子(약학55-59)·權永昊(약학55-59)·李世榮(약학57-61)·故 鞠探豪(대학원 65졸)·吳世瓊(약학61-65)·張正訓(약학69졸)·車連澤(약학67-74)동문 〈榮〉

재학생의 소리



보드게임 동아리 ‘BoGus’ 아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드게임 동아리 ‘BoGus’ 회장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아마도 보드게임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보드게임의 사전적 정의는 ‘판 위에서 말이나 카드를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임’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블루마블, 젠가, 할리갈리, 카탄이 있습니다.

BoGus는 사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동아리입니다.

처음엔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선배 두 분께서 의기투합해 기숙사에서 보드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소규모 모임을 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정식으로 동아리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급팽창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많은 학우들의 보드게임에 대한 관심 일 것입니다.

BoGus의 당면 과제는 ‘동아리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아리 특성상 모여서 게임하고 또 게임들을 보관해야 할 장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李 韓 彬
(원자핵공학08입)
BoGus 회장

그러나 학내 공간부족의 문제로 인해 신생동아리는 동아리방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재건축 중인 구관 기숙사의 완공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기숙사에는 동아리들을 위한 공간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동아리 홍보를 하면서 많은 학우들이 ‘보드게임’에 관심이 있지만 주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oGus가 학우들에게 보드게임을 전파하는 선도자 역할을 맡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활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콩트 릴레이

모차르트는 늙지 않는다

曹 龍 鎬(신문학81-85)
세계일보 선임기자·소설가



과사무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일요일 오후 고적한 캠퍼스의 어둡고 긴 복도에는 아들과 나의 구두소리만 퍼져나갔다. 삼십여 년 저 쪽의 여유로운 캠퍼스에 비해 콩나물을 심어놓듯 틈만 보이면 건물을 뿔뿔이 세워놓아 답답해 보였는데, 그 사이 정들었던 그곳은 다른 건물로 옮겨간 모양이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소식이 끊긴 아들을 찾아 이곳 과사무실 주변을 배회한 적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때의 내 나이에 육박한 아들을 데리고 그 시절 그곳을 산책하는 마당이니 세월이 참 오묘하다.

수능시험을 끝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다니던 대학을 구경하고 싶다고 청해서 일요일에 산책 겸 들른 길이었다. 아들과 함께 이 캠퍼스를 거닐게 되리라고 그 시절엔

“

어둡고 무거운 시대 분위기 때문에
서클 안에서 서로 직원들끼리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배들은 조심하라고 당부하곤 했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
그 선배들이 후배들과 연애를 했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지만...

”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당장 하루 앞이 불투명한 나날이었으니 어찌 삼십여 년 뒤에, 그것도 아들과 함께 캠퍼스를 걷는 꿈이 가당키나 했었을까.

건물에서 빠져 나와 교정을 걸었다. 겨울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가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섭섭하고, 그렇다고 늦가을이라기엔 벌써 대관령에는 첫눈이 내렸더니 그것도 몇찍은 명명이다. 이래저래 한 해 중 가장 존재감이 희미하고 쓸쓸한 십일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캠퍼스 곳곳에는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떨어어낸 이파리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캠퍼스에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형태가 바뀌긴 했어도 도서관과 본부 건물 사이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 시절 사복 경찰들이 캠퍼스 곳곳의 벤치를 장악해 삼엄한 경계를 펼쳤어도 늘 시위에 불을 붙이는 곳은 도서관 난간이었다. 핸드마크 사이렌을 울리며 난간에 나타난 학생이 구호와 함께 유인물을 눈처럼 뿌리면 학생회관이나 아크로폴리스 이곳 저곳에 산재했던 학생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대오를 형성했다. 이어 함성이 캠퍼스를 뒤흔들기 시작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탄이 터지고 전경들의 군화발 소리가 함성과 부딪쳤다. 쫓고 쫓기는 마라톤이 광활한 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졌다.

그네를 만난 것도 그 와중이었다. 최루가스 때문에 눈물범벅이 돼 쫓겨다니다 소용돌이가 잠잠해질 무렵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주저앉아 있는 그네를 보았다. 머리를 다리 사이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는 품이 계속 울고 있는 모양이었다. 석양녘이었고, 찬바람이 산 중턱에 자리잡은 캠퍼스를 휘감았다. 그냥 지나치기가 안쓰러워 그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나직이 위로의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 (서양화02-07) 동문

말을 건넸다. 그네와 함께 학생회관 식당에 들러 허기진 배를 채우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란히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네의 과 선배가 그날 도서관 난간에 올라갔었던 모양이다. 그 선배는 그날 시위에 불을 붙인 후 그를 잡으러 난간 양쪽에서 접근해 오는 이들을 피해 아크로폴리스 광장으로 몸을 던졌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는 많고도 많다. 그때의 아픔과 고통을 아들에게 말해준들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세요?”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지나 학생회관으로 향하는 도중 멍하니 도서관 난간을 올려다보고 서 있는 나에게 녀석이 길을 재촉하며 물었다. 도서관만큼은 아니지만 녀석도 한참 올려다보야 한다. 씨도독질은 못한다는데 나는 그저 중키에 불과한데도 녀석은 1백90센티미터를 넘어서 버렸다. 상념에서

깨어나 녀석을 올려다보며 슬쩍 웃어줬다.

“응, 아버지 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여학생이 생각나서… 너는 수능도 끝났는데 만나는 여친 없냐?”

아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반색을 하고 재우쳐 물었다.

“그래서요, 그 여학생과 얼마나 사귀셨는데요? 엄마에겐 비밀로 할게요.”

어느새 성인이 된 아들과 스스럼없이 이런저런 말을 섞게 된 상황이 흥미로웠고,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해서 아들의 질문에 더 적극적으로 답했을 것이다. 사나이들끼리 서로 비밀 하나쯤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심정으로 슬며시 녀석을 때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게다.

“그럴 수 있겠냐? 엄마가 알아도 큰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야. 네가 끝까지 비밀을 지킨다면 묻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줄게. 그 여학생과는 2학년 때 만나서 졸업할 때까지 붙어 다녔다. 참 애뻤고 취향도 나와 비슷해서 서로 무척 좋아했지.”

“엄마도 같은 캠퍼스에 다녔는데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있나요?”

“야, 이 녀석아! 아무리 같은 캠퍼스에 있어도 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누가 누구와 붙어 다니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아냐?”

녀석은 아버지의 옛 연인이 대단히 흥미로운 모양이었다. 녀석이 바짝 관심을 보이자 나는 내대로 새로운 흥미가 생겼다. 그래서 내친 김에 더 나아가 버렸다.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후 취직한다고 우왕좌왕하던 와중에 그네와 소식이 끊어져버렸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 흐른 뒤 다시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의 흘러간 가벼운 추억으로만 알고 흥미를 보이던 아들 녀석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녀석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따라왔다. 학생회관의 외양은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일층 식당의 의자들이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군대군대 칸막이가 생긴 정도에다, 백반 한 끼에 4백원이었는데, 그 돈도 궁해서 식판 하나로 여러 번 음식을 타와 친구들끼리 나눠 먹던 기억이 선명한데, 그 가격이 지금은 2천원으로 오른 것 정도만 빼면 예전 그대로였다. 이층으로 올라가 그네와 함께 부대끼던 서클룸을 찾았지만 그 자리는 좀체 찾기 어려웠다. 공사를 다시 해서 방을 늘리고 크기도 변형시켜 놓아 막연히 예전 위치만 기능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시절 우리는 과사무실보다는 이곳에 머무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 그네와 나는 단과대학이 다르고 당연히 과사무실도 떨어져 있었기에 우리의 아지트는 서클룸일 수밖에 없었다. 그네와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그 시절 모든 학교생활은 서클룸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실, 지금 젊은이들이 누리는 자유롭고 분방한 연애에 비하면 그 시절의 만남은 연애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둡고

무거운 시대 분위기 때문에 서클 안에서 서로 직원들끼리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배들은 조심하라고 당부하곤 했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 그 선배들이 후배들과 연애를 했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네와 나는 이미 소문난 관계였던 터라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뛰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용인되는 커플이었다. 그렇게 조심하게 처신해야 하는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드는 데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 분… 지금도… 만나세요?”

내내 침묵을 지키며 뒤편 따르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아버지의 옛 연애의 추억을 들추던 녀석이 복잡한 표정으로 주저하는 모양이 우스웠다.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할까. 정직하게 말해버릴까, 아니면 적당히 포장을 해놓았다가 후일 녀석이 세상에 나와 본격적으로 연애도 하고 이러저러한 인간관계를 해치고 나온 뒤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겠냐? 비밀 지킬 자신 있어?”

“제가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집의 평화가 깨지는 건가요?”

“글쎄…”

“아버지 죄송해요. 그렇다면 듣지 않을래요. 그냥 묻지 않았던 걸로 해주세요.”

‘자식, 소심하기는!’ 속으로는 혀를 차면서도 내심 미안해졌다. 하지만 어쨌든, 한번 발설했는데 끝까지 가는 수밖에.

“이왕 꺼낸 말이니 애매하게 농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더 낫겠다. 나… 지금까지, 그 여자,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

학생회관에서 나와 정문으로 가는 대로변에 들어섰다. 가지에 얼마 붙어 있지 않은 은행잎들이 석양녘의 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었다.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도 떨었다. 아내였다. 애초에 아내도 오랜만에 모교 캠퍼스를 아들과 함께 거닐고 싶어했는데, 성당에서 봉사할 일이 생겨 부자만 온 거였다. 뒤늦게 서둘러 일을 마친 아내가 지금 정문을 차를 몰고 통과하고 있다는 전화였다.

잠시 기다렸다가 아내를 데리고 음대 쪽 식당으로 올라가 커피를 마셨다. 모처럼 남편에다 아들까지 동반해 추억의 교정을 찾아 상기된 아내의 귀밑에 흰 머리칼이 싹뿔 보인다. 그 시절 음대 쪽에서는 늘 오랫동안 남아 연습하는 학생들의 각종 악기 소리가 분위기를 돋우어주곤 했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학교에 나온 학생의 호른 연습 소리가 즐기차게 들려왔다. 세월이 흘러 사랑은 늙어가도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들은 제 어미가 온 뒤부터는 어둑해지는 창 밖을 멍하게 바라볼 뿐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일곱에 근심이 가득하다. 녀석, 저리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 앞으로 어찌 연애는 하려나.

“여보, 애가 왜 이리 심각해요? 꼭 당신 학교 다닐 때 표정 같네요. 서클룸에 들릴 때 저녁 무렵이면 당신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창 밖을 바라보곤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정신이 반짝 든 듯 고개를 돌려 아비와 어미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그제야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은행잎 하나가 날아와 유리창에 부딪치더니 스프르 미끄러져 내렸다.

동 정

수 상

▲李吉女(의학51-57 가천길재단 회장·경원대 총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27일 (사)청권사로부터 제12회 효령상(사회봉사부문) 수상.

▲柳俊馨(법학51-66 前함경남도지사)=지난 10월 11일 이북도민 권익신장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咸泰埵(건축52-56 장은공약재단 이사장)=지난 11월 11일 제10회 부품소재 기술상 시상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閔丙天(정치52-56 북한연구소 이사장)=지난 11월 27일 통일문화연구원으로부터 제5회 통일문화대상 수상.

▲李蘭映(사학53-57 前국립경주박물관장)=지난 11월 2일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식에서 보관문화훈장 수훈.

▲金后蘭(가정교육53임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지난 11월 16일 현대시박물관에 제정한 제1회 '넙 시인상' 수상.

▲韓完相(사회55-60 前대한적십자사 총재)=지난 11월 16일 미국

에모리대로부터 '명예로운 해외 동창상' 수상.

▲劉淨圭(토목공학57-61 유신코퍼레이션 회장)=지난 11월 19일 인천세계도시축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吳世鎭(의학59-65 소아과 전문의·수필가)=지난 11월 24일 수필 '방학동 은 행나무'로 보령제약이 수여하는 의사수필문학상 대상 수상.

▲徐大錫(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1월 13일 于湖문화재단으로부터 제2회 우호학술상(비교문화 및 문화학부문) 수상.

▲金德龍(사회61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지난 11월 27일 대한무궁화중앙회로부터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 대상(정치부문) 수상.

▲李澈周(회화61-67 중앙대 명예교수)=지난 11월 24일 안건기념사업회로부터 제3회 안건미술문화대상 수상.

▲朴贊扶(영문66-70 경북대 교수)=지난 11월 13일 于湖문화재단으로부터 제2회 우호학술상(외국문화부문) 수상.

▲李仁(항공공학68-72 KAIST 교수)=지난 11월 12일 한국항공우주학회·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으로 제정한 항공우주공로상(우주부문) 수상.

▲朴柱宣(행정70-74 국회의원)=지난 11월 27일 대한무궁화중앙회로부터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 대상(정치부문) 수상.

▲梁承萬(화학공학71-76 KAIST 교수)=지난 11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5회 경암학술상(공학부문) 수상.

▲李元熙(국어교육71-8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지난 11월 27일 대한무궁화중앙회로부터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 대상(교육부문) 수상.

▲李珉和(전자공학72-76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지난 11월 3일 제7회 매경비트학술상 최우수 논문상 수상.

▲愼昌幸(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10일 싱가포르 판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보험산업대

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시아 최고 생명보험회사상' 수상.

▲洪錫珪(외교75-79 보광그룹 회장·히닉스커뮤니케이션즈 회장)=지난 11월 3일 제23회 한국광대회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禹亨植(사회교육75-79 금오공대 총장)=지난 11월 9일 몽골 고등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친선훈장' 수훈.

▲許南植(행대원78졸 부산광역시장)=지난 11월 27일 대한무궁화중앙회로부터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 대상(행정부문) 수상.

▲權俊壽(의학78-84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1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9회 분쉬의학상 수상.

▲趙錫來(AMP 11기 효성그룹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지난 11월 5일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旭日大綬章 수훈.

▲羅鍾億(AMP 48기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최근 시집 '연꽃이 필 무렵'으로 제19회 청하문학상 수상.

▲朴成得(ACAD 20기 前정보통신부 차관·한국해킹보안협회 회장)=지난 11월 12일 신산업경영원이 주최한 제21회 뉴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정보통신인'상 수상.

▲이덕수(ACAD 44기 타임즈코어 회장)=지난 11월 18일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영어신문(틴타임즈, 키즈타임즈, 킨터타임즈) 읽기와 영어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장 수상.

인 사

▲金演表(임학51-58 산림임업사랑 시민연합회장)=지난 11월 19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국임업회관 건립추진 위원장에 선출.

▲鄭東哲(의학54-60 신경정신과 의원장)=지난 11월 9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해암병원 원장에 취임.

▲李惠星(국어교육58-62 이화여대 명예교수)=내년 2월에 개교하는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총장에 취임.

▲安國正(사학63-70 모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9일 동아일보 방송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에 선임.
▲李錫采(경영64-68 KT 회장)=지난 11월 9일 임기 3년의 제2대 한국경제교육협회(KEEA) 회장에 선임.

▲柳佑益(지리67-71 前대통령실장·모교 지리학과 교수·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지난 11월 13일 주중 대사에 임명.

▲金仁圭(정치69-73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24일 임기 3년의 제19대 KBS 사장에 취임.

▲郭贊浩(신대원69-71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국통일문화연구소 이사장)=지난 11월 13일 임기 2년의 고려대 기별교우회

高岩會 회장에 재선임.

▲**申相完**(치의학71-77 고려대 교수)=최근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국제치과보철학회(ICP) 총회에서 임기 2년의 공동 회장에 선출.

▲**李哲熙**(의학78졸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19일 서울시 보라매병원장에 선임.

▲**吳在寅**(경영76-80 단국대 교수)=최근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수석부회장 겸 차차기(2011년) 회장에 선출.

▲**蔡耕玉**(경영86-90 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국 취재팀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10일 매일경제신문 속보국 뉴스취재부장으로 승진.

▲**李炯均**(정치59-64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경향신문사우회 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일 한국언론재단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경향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李鍾協**(기악62-66 중앙대 명예교수·협스트링 앙상블 음악감독)=지난 12월 12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협스트링앙상블과 함께 하는 영아티스트 콘서트 개최.

▲**金東鎭**(기악63-67 前경원대 교수·클라리네스트)=지난 12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郭貞善(기악90-94 바순)·李倫定(기악90-94 오보에)·金弘博(기악00-04 호른)등문 등과 함께 세종목관합창비앙상블 연주회 개최.

▲**辛鉉雄**(지리64-68 웅진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樂石 金聖泰선생 백수 기념 ‘음악 80년 인생’ 축하공연을 비롯해 예술영재 장학생 멘토링 행사 개최.

▲**李建鏞**(작곡65-74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2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白勝寓(작곡82-86)·文晟準(작곡86-91)·李龍株(작곡86-92)·鄭承宰(작곡88-94)등문 등과 함께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개최.

▲**權寧傑**(응용미술69-76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지난 11월 20일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혁신’ 주제로 강연.

▲**安東晚**(건축69-73 모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인공지능·녹화협회장)=지난 10월 2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인공지능·녹화’ 국제세미나 개최.

▲**李鍾淑**(성악69-73 성결대 교수)=지난 12월 5일 서울 세종체임버홀에서 헨델, 바흐,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개최.

▲**安炳燦**(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6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공영방송 정체를 해부하다’를 주제로 제28차 언론인권포럼 개최.

▲**鄭道彦**(의학70-76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최근 신간 ‘프로이트의 의자-숨겨진 나와 마주하는 정신분석 이야기’(웅진지식하우스刊) 출간.

▲**姜起敬**(역사교육73-77 강원도 행정부지사·강원도립예술단장)=지난 11월 3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전통과 창조, 세계로의 울림’을 주제로 강원도립예술단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개최.

▲**權奇允**(회화74-81 안동대 교수)=지난 11월 11~22일 서울 팔판동 한벽원 갤러리에서 ‘翠衣·산빛이 옷에 물들다’를 주제로 실경산수전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아시아기자협회 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4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G20시대의 녹색성장-현재와 미래’ 및 ‘미디어와 테러리즘’을 주제로 아시아기자협회 포럼 개최.

▲**金東守**(기악82-90 대진대 교수)=오는 12월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제5회 금과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에 지휘자로 출연.

▲**朴寅星**(한대원83-85 중국 浙江大 교수)=지난 11월 13일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정리한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출간.

▲**鄭載潤**(기악85-89 전북대 겸임 교수·첼리스트)=지난 12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정남일(기악86-90)등문과 두오 리사이틀 개최.

▲**李瑄娥**(기악90-94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지난 12월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첼로 독주회 개최.

▲**鄭孝聲**(국악91-95 아시아금교류회 회원)=지난 12월 9일 서울 부암아트홀에서 가야금 독주회 개최.

▲**김범기**(작곡93-98 작곡가)=지난 12월 4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음악극 ‘성난 기계’를 주제로 작곡 발표회 개최.

▲**서수민**(기악97-01 앙상블 에클라 단원)=지난 12월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올라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02 카메라타 서울앙상블 단원)=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金鎭敦**(HPM 4기 문제당하의원장·송파문인협회 회장)=최근 한국노동행정연수원에서 얼굴과 직업 그리고 건강에 대해 강연. 또 서울 송파구청에서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제로 특강.

행 사

▲**權壽赫**(의학41-47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본회 고문)=지난 11월 24일 서울 논현동 컨벤션 해리츠타워에서 북한결핵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제2회 생명나눔의 밤 행사 개최.

▲**李御寧**(국문52-56 중앙일보 고문)=지난 11월 27일 서울 국립극장(하늘극장)에서 評歷 50년 기념 ‘만남 50년’ 행사 개최.

명복을 빕니다

(괄호안은 향년 표시)

- ▲**李誠載**(작곡48-51 모교 명예교수)=11월 29일 별세(85세)
- ▲**崔一善**(수학교육58졸 법한택시 회장)=11월 17일 별세(77세)
- ▲**文泰哲**(경제58-62 前진주MBC 상무)=11월 6일 별세(70세)
- ▲**許永燮**(금속공학60-64 녹십자 회장)=11월 15일 별세(68세)
- ▲**延元泳**(경영67-71 前자산관리공사 사장)=11월 22일 별세(61세)
- ▲**許 銘**(생물교육73-77 이화여대 교수)=11월 23일 별세(54세)
- ▲**尹承夏**(조선공학75-79 텔리티푸드 대표)=11월 25일 별세(53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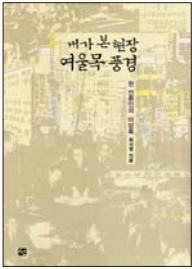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내가 본 현장

여울목 풍경

－ 崔瑞泳 지음



을 역임한 崔瑞泳(정치54-58 한 남대 초빙교수)동문의 비망록.

저널리스트는 역사의 일기를 쓰는 현대판 사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외국에는 저널리스트들이 쓴 논픽션 출판물이 독서계의 주류를 이루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매우 뒤쳐져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도 큰 뜻이 있다.

우리 언론계의 실상과 기자 사회의 풍속도, 취재에 얹힌 각 출입처의 생태, 지금은 잊혀져 가는 그 시절 그때의 여러 사건들, 또한 시대를 이끌었던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특파원 생활을 통해 본 일본의 이모저모 등 사실 그대로 재미있게 쓰여 있다.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들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만하다.

(도서출판 선刊·값15,000원)

■ 아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 禹在九 지음



동부애트나생명보험 사장, 목원대 겸임교수를 지낸 禹在九(상학55-61) 동문이 6.25전쟁 전

후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하게 담아낸 에세이. 1936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禹동문은 자신이 겪었던 해방과 전쟁 그리고 전쟁 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급변의 시기를 견뎌내고 최고의 경영진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펼쳐낸다.

禹동문은 개개인의 관점에서 한 편으로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한 각자의 체험을 기록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와 우리 앞선 세대가 부끄럼 없이 피땀 흘리며 국가건설과 기업창달, 그리고 민주화에 힘써 매진했

다는 것을 같이같이 남기고 싶다고 주창한다.

(석필刊·값18,000원)

■ 문화로 보는 한국사

－ 李泰鎮교수 정년기념논총



모교 국사학과 李泰鎮(사 학 61-65) 명예교수의 정년퇴임을 계기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감

사의 마음을 담아 펴낸 책. 李교수는 시대상으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분야상으로는 사회경제사, 사상사, 외교사, 그리고 과학기술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척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연구 분야가 단절되지 않고 서로 연결돼 새로운 한국사상을 정립하는 토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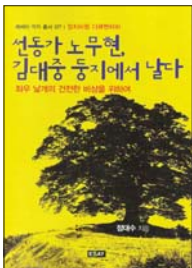
한신대 安秉佑교수를 비롯해 전공이 다양한 20여 명의 제자들이 뜻을 모아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 ‘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국왕 의례 정치’, ‘세계 속의 한국사’ 등 5권을 한 질로 묶어 출간했다.

(태학사刊·값125,000원)

■ 선동가 노무현,

김대중 동지에서 날다

－ 鄭大秀 지음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지낸 鄭大秀(신대원61-70) 동문이 노무현 정권과 그 개인

의 공과, 그리고 한계를 조망한 책. ‘청문회 스타’ 또는 ‘바보 노무현’으로 일컬어지며 대권가도에 진입하게 되는 한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이, 더군다나 그가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았던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반칙을 묻어 버리고 때마침 열리기 시작한 미디어 정치시대의 흐름을 타고 어떻게 확대 과장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가를 분석했다.

또 더벅머리 총각에서 대통령이 되는 영광 끝에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기보다도 차라리 그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본다.

(ESSAY刊·값17,000원)

■ 신뢰와 존경을 받는 언론

－ 朴錫興 편저

경향신문과 문화일보에서 학술



전 문기자, 국장, 논설위원 등으로 33년간 신문 제작에 참여한 朴錫興(불 문 63-67) 동문은 외대, 건국대, 숙명여대, 건양대에서 8년간 언론학 강의를 하며 남활자에서 컴퓨터체제로 바뀐 한국언론 40년 역사 현장을 지켜왔다. 차동문은 이 책에서 金大中·盧武鉉정부의 ‘신문과 전쟁’을 고발하며 취재보도의 이론과 실재를 제시했다.

12장으로 편집된 이 책은 조선조 전량 중심의 언론시스템이 숙종, 영조에 의해 파괴된 후 일제 침략으로 왜곡된 근·현대 한국 언론의 선정주의 보도와 정파저널리즘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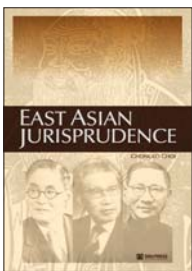
취재보도와 홍보의 바른 방향을 정리한 이 책은 한국 언론의 정파저널리즘 극복과 윤리 확립 등 한국 언론의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이담북스刊·값17,000원)

■ EAST ASIAN

JURISPRUDENCE

－ 崔鍾庫 지음



세계법철학회 이사 겸 한국학회장인 모교 법학부 崔鍾庫(법학66-70) 교수가 세계 최초로

동아시아법철학의 역사와 이론을 영어로 출간했다. 崔교수는 서양의 로크, 칸트, 켈젠은 알라도 동아시아의 법사상가들은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1백명이 넘는 법사상가 내지 법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압축해 시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법의 개념, 법과 정의의 형상, 법의 목적, 여성 법철학, 법과 도덕·실천이성·이데올로기·종교 등을 다뤘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35,000원)

■ 식품안전

■ 행복한 바보

－ 禹昌命 지음

‘식품안전’은 우리경영혁신연구소 禹昌命(농화학66-70)소장이 다년간 봉직한 식품업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품안전시스템에 관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책.

禹동문은 식품안전 문제가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기본

전 시

東江 趙守鎬동문

북경 국제서법쌍년전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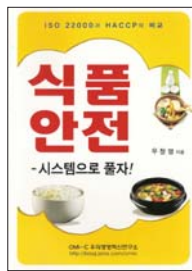


국내 書壇의 거장인 東江 趙守鎬(회화47입)동문(사진 左)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국 북경시 노동인민 문화궁에서 열린 제3회 북경國際書法雙年展에서 중국서법

가협회 沈鵬명예주석(사진 右)과 함께 서법예술연을 개최했다.

‘筆歌中國’을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기획전은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개최된 한·중 양국의 거장전으로 세계 서예사에 길이 남을 초유의 행사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趙동문은 현재 한국서예문화 원로총연합회 총재, 한국국제서법연맹 총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한국미술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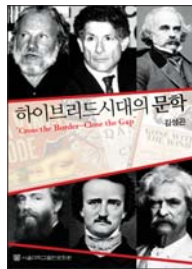


무서워하는 평범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경영혁신연구소刊·값20,000원/값10,000원)

■ 하이브리드시대의 문학

－ 金聖坤 지음



모교 영어영문학과 金聖坤교수가 모든 것의 경계를 넘어 다 른 영역을 탐색하고 다른 문화와의 융

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하이브리드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 최근 문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포착하고, 새롭게 등장한 문예이론들을 성찰하고 있다. 즉 트랜스시대의 대표적인 문예이론들을 점검하고, 최근 미국 문학의 특징인 탈중심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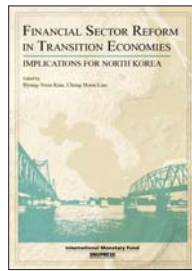
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시대에 다시 읽어봐야 할 문학작품을 간단한 내용설명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5,000원)

■ Financial Sector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金炳椽 편저



모교 경제학부 金炳椽(경제 81-85) 교수와 IMF의 립첸 훈 자문관이 편집하고 국내 저자 3인

과 세계은행 전·현직 이코노미스트 7인이 공동으로 북한 금융개혁의 로드맵을 그린 영문출판물. 총 3부로 나뉘 1부에서는 체제 이행국들의 금융개혁 경험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있다. 구체적인 금융제도 개혁을 다룬 2부에서는 중앙은행의 개혁, 상업은행의 구조조정, 개발은행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있다. 3부는 북한의 금융과 환율 문제에 초점을 맞춘 세 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앞서 체제이행을 경험한 동유럽, 중국, 독일의 경험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의 교훈을 도출한 후,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IMF·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35,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전자공학48-56)
- △김종섭(사회사업66-70)
- △김형주(토목공학46-50)
- △박호전(경영학62-66)
- 김영희(작곡62-66)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계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자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석규(화학공학48-52)
- ◆2억원
- △남정현(건축학57-61)
- △이종기(경영학69-73)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장용택(약학55-61)
- △장학순(토목공학46-50)
- △조필제(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촌5부자
- ◆1억2천만원
-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 △성백전(토목공학52-56)
- 김인순(화학공학54-58)
-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곽동현(법학61-65)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학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목(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변주선(영어교육60-64)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졸)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운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응현(섬유공67-71)
- 추경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이지호(의학77-83)
- △이해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정윤환(임학56-62)
- △정충시(화학공학72-76)
- △조경일(약학64-68)
- △조병우(섬유공학59-64)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욱(원예학83-87)
-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 △김윤택(경대원68-70)
- △화학동창회
- ◆5천2백만원
- △이현조(철학52-57)
- ◆5천50만원
- △하상완(치의학64-70)
- ◆5천30만원
- △이종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 △강인구(수의학59-64)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종기(생물교육51-55)

- △김중서(경제학58-63)
- △김중현(경제학55-59)
- △류재명(AMP 34기)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명운(보대원74-76)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중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졸)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효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지창수(상학55-59)
- △하권익(의학57-63)
- △허부열(경영학74-78)
- △허병하(상학58-62)
- △홍예표(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그린장학회
- △농대 일산회
- △한우리SJM
- ◆3천60만원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 △고원호(기계공학48졸)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심형운(토목공학52-56)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약70졸)
- △이경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신혁(문리66-73)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악66-70)
- △김재백(약학52-56)
- △서병륜(농공학69-73)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윤세극(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 정정영(불어불문62-66)
-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 △김철순(조경학76-83)

- △치불희
- ◆1천2백만원
- △강웅선(치의학78-84)
- △심영보(의학55-61)
- △안동일(법학59-63)
- △오상호(전기공학48-55)
- △이내원(화학교육58-62)
- △이재철(법학70-77)
- △한규택(원자핵공73-77)
- ◆1천1백50만원
- △천남중(자원공학65-69)
- ◆1천1백30만원
- △신면우(의학50졸)
- ◆1천1백10만원
- △이홍중(역사교육54-58)
- ◆1천1백만원
- △김상복(종교학57-63)
- △김상수(자원공학73-77)
- 김태훈(건축학02-07)
-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 △서병태(의학54-60)
- △조내규(약학58-62)
- ◆1천70만원
- △김정범(치의학60-66)
- ◆1천60만원
- △박준옥(약학55-59)
- ◆1천30만원
- △박만호(행정학57-62)
- △심이택(화학공학57-63)
- △이영필(항공공학66-71)
- △이형하(법학74-78)
- △지현택(치의학43-47)
- △허성길(경제학60-64)
- ◆1천만원
- △강신주(사회교육51-55)
- △강용현(법학71-78)
- △강행언(토목공학61-65)
- △고광우(행정학53-58)
- △권동은(FIP 4기)
- △권혁웅(불어불문59-63)
- △금진호(법학50-58)
- △김 철(기계공학64-68)
- △김기춘(법학58-62)
- △김두만(상학59-63)
- △김미령(약학74졸)
- △김백준(수학62-66)
- △김병린(토목공학55-59)
- △김상호(법학72-76)
- △김선양(중어중문84-88)
- △김연호(화학공학71-75)
- △김영갑(법학74-78)
- △김영석(경제학60-66)
- △김영재(공업화학77-81)
- △김원배(동물학55-60)
- △김윤중(약학64-71)
- △김은식(국사학73-80)
- 윤영옥(생물교육72-76)
- △김일섭(경영학64-69)
- △김재범(산업공학74-78)

- △김재호(생물교육53-57)
- △김주환(토목공학57-61)
- △김진규(기계공학61-66)
- △김찬욱(기계공학55-59)
- △김철수(법학52-56)
- △김평우(법학63-67)
- △노병수(공법학83-87)
- △류태환(상학48-54)
- △문규철(응용화학69-73)
- △문대원(경영학71-75)
- △문명국(기계공학73-75)
- △문성훈(식품공학86-92)
- △박덕철(기계공학57-61)
- △박명학(영어교육61-65)
- △박종국(농화학57-63)
- △박준우(의학75-81)
- △박진희(무역학76-80)
- △박창우(경제학80-84)
- △배명인(법학52-56)
- △백사익(채광학40-42)
- △변상현(의학51-57)
- △서계수(기약56-60)
- △석학진(상학58-64)
- △설동섭(축산학53-57)
- △신방호(경제학67-71)
- △신윤식(사학55-59)
- △안경상(행정학57졸)
- 김정애(가정교육54-58)
- △양배덕(전기공학57-61)
- △양성철(정치학58-64)
- △엄기영(사회학70-74)
- △오병제(AMP 21기)
- △오용섭(임학60-66)
- △유홍수(법학58-65)
- △유희준(상학49-55)
- △윤영석(경제학58-64)
- △윤희진(축산학63-67)
- △이강수(상학51-55)
- △이경호(행정학61-65)
- △이계우(행정학58-63)
- △이동철(토목공학78-82)
- △이병제(경대원69졸)
- △이병형(화학67-71)
- △이상현(정치학64-68)
- △이석윤(영어영문50졸)

- △이송은(상학53-57)
- △이인기(지질과학62-66)
- △이재후(법학58-62)
- △이전구(임학60-64)
- △이종웅(기계공학65-69)
- △이진규(치의학78-84)
- △이창기(약학55-59)
- △이창원(법학55-60)
- △장무환(경제학45-51)
- △장세권(농공학70-76)
- △장익용(기계공학54-58)
- △장지준(의학70-77)
- △장휴동(농경제학59-63)
- △조길웅(HPM 14기)
- △조정훈(자원공학75-81)
- △최남해(상학52-56)
- △최신집(사회교육75-79)
- △최승철(기계공학66-70)
- △최준기(조선항공57-61)
- △추재옥(의학63졸)
- △표상기(원자력공61-65)
- △허영기(정치학44-48)
- △한창섭(정치학57-62)
-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 △함정호(행정학53-57)
- △허 선(정치학64-68)
- △홍순자(독어교육61-65)
- △황경로(AMP 11기)
- △황남주(물리학87-92)
- △전북지부동창회
- △간호대학동창회
- ◆9백만원
- △김현산(법학54-58)
- ◆7백만원
- △정경모(행대원65-67)
- ◆5백만원
- △김영수(법학60-64)
- 원종순(국어국문64-68)
- △박수복(농생물학56-61)
- △신박일(약학60-64)
- △윤성근(공업교육74-78)
- △윤순녕(간호학69-73)
- △윤익석(축산학49-53)
- △이윤경(간호학65-69)
- △이현구(AMP 52기)



△정주석(법학61-65) △조상근(행정학69-73) △조원환(AMPP 6기) △법대37회 동기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김명도) ◆4백30만원 △강종원(전기공학59-65) ◆3백90만원 △이정식(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권속일(물리학54-58) △권학창(지구과학69-76) △김인규(정치학69-73) △김재율(경성법전39졸) △박금식(화학54-58)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이재식(교육학75-79) △임채주(경제학55-59) △정영채(수리학56-60) △하재규(농학53-57) △황선용(사회교육57-61) ◆2백50만원 △홍순명(축산학68-72) ◆2백30만원 △신성우(AMP 32기) △이준형(GLP 11기) ◆2백만원 △김혜경(생물교육70-74) △나정우(농공학72-77) △문창국(정치학68-72) △박태원(정치학46-50) △성기학(무역학66-70) △오복동(법학57-63) △유지열(외교학84-88) △윤정일(교육학62-66)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원태(농경제학64-68) △이종순(법학57-61) △이흥구(법학53입) △이희호(교육학46-50) △임규운(행정학53-57) △정낙찬(서양사학9-73) △정용인(법학60-64) △최창식(의학54-60) △한영국(경제학50-54) △허영호(전자공학71-75) △홍석준(사회학73-77) △황선태(법학66-70) △황의인(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의학70-77) ◆1백73만원 △최인갑(금속공학57-62) ◆1백60만원 △인효석(농공학80-87) ◆1백50만원 △곽 승(화학공학59-63) △김건호(수리학70-74) △윤옥영(수학58-61) △이기남(수학67-71)	△이진호(화학공학85-89) △정성진(법학58-63) △조귀장(사법학86-90) ·김주영(지리학92-97) △조현래(대학원75입) ◆1백30만원 △김영균(법학57-59) △김종철(치의학71-77) △김진억(법학55-60) △문일환(치의학65-71) △송진해(공업교육63-72) △양동관(법학67-71)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태형(상학59-63) △임한조(물리학67-71) △정휘위(법학62-66) △조병철(섬유공학59-65)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추호석(경영학69-73) △현전욱(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농업교육63-67) ◆1백21만원 △박정식(약학57-61) ◆1백20만원 △강효식(치의학57-61) △김영도(축산학68-75) △김주현(의학65-71) △김진원(건축학68-72) △나명훈(의학76-83) △부장렬(건축학77-81) △송창기(중어중문57-62) △이갑노(의학65-71) △이계홍(농공학56-62) △이상건(섬유공학74-78) △이정우(AMPFRI 17기) △이장건(전기공학49-54) △조용국(사회학66-70) △차왈보(의학53-59) ◆1백15만원 △이원영(ACAD 11기) ◆1백13만원 △홍성욱(GLP 3기) ◆1백10만원 △김 현(법학76-80) △김공립(약학62-66) △김기섭(정치학69-73) △김기영(ACAD 49기) △김도현(대학원74-76) △김동만(GLP 15기) △김선복(건축학62-66) △김지호(화학공학55-59) △명동근(경제학45-52) △민미란(국악73-77) △박영원(지리학74졸) △박창순(기계공학64-68) △백 철(상학56-61) △백낙운(독어독문56-60) △변재용(토목공학75-81) △송경희(국악59-63) △신동승(법학79-83) △원우현(행정학61-65) △유종일(신대원72-74) △유해덕(법학53-57) △이경보(토목공학46-50) △이근남(불어불문68-72) △이두현(행대원74졸) △이명훈(농경제학69-73) △이정자(국어국문50졸) △이종팔(경영학76-80)	△전계묵(금속공학56-61) △전영철(미학53입) △조준래(AMPFRI 12기) △지근진(농공학58-64) △최병호(화학교육57-61) △최연균(중어중문67-71) △허신형(농경제학62-66) △홍성완(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경만(의학80-87) ◆1백만원 △강구선(광산학63-67) △강규석(물리교육58-62) △강덕수(GLP 8기) △강성수(섬유공학57-61) △강성현(치의학69-75) △강영복(상학51-55) △강원일(행정학59-63) △강정일(농경제학64-68) △강종표(외교학76-83)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병우(경제학52-56) △고의식(수리학56-60) △고재선(섬유공학52졸) △고호곤(AMP 58기) △구재철(의학78-84) △권광중(법학61-65) △권순철(전자공학83-85) △권이혁(의학41-47)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국일(토목공학63-68) △김규복(법학69-73) △김규형(약학53-57) △김기수(행정학47-51) △김노수(섬유공학45-52) △김달식(법학53-57) △김덕영(토목공학45-47) △김덕원(수리학50-54) △김덕중(외교학71-75) △김도연(행정학58-63)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명자(화학62-66) △김방연(상학52-56)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석건(농경제학50-55) △김석기(행정학64-68) △김석준(기계공학72-76) △김승권(기계공학68-72) △김연호(영어교육67-75) △김영기(법학54-58) △김영배(농공학78-85)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일(법학60-64) △김영재(법학57-62) △김용식(건축학70-74) △김용운(치의학62-68) △김용찬(농화학57-61) △김우동(계산통계72-79) △김유경(SPARC 2기) △김윤재(상학54-58) △김익모(AIP 23기) △김인중(법학56-60) △김일환(천문기상64-72) △김재락(법학78-82)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종국(농화학63-70) △김종욱(경제학58-62)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중기(경제학54-58)	△김진세(법학61-69) △김진우(약학54-58) △김진호(법학57-61) △김창국(법학56-60) △김창순(경성여사법43입) △김태현(제약학71-75) △김태홍(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68-72) △김학근(약학51-55) △김학원(법학66-70) △김현재(법학56-61) △김형기(불어교육72-76) △김형욱(AIP 37기) △김형진(기계공학51-55) △김혜성(식품영양70-74) △김호룡(법학48-52) △김홍종(수학74-78) △김화중(간호학63-67) △김환수(법학52-56) △김효종(법학61-65) △김후란(가정교육53입) △나도선(약학67-71) △나종택(기계공학53-57) △노승행(법학58-63) △류종묵(상학59-65) △류철호(토목공학67-71) △마인경(지리교육56-60) △문광순(광산학60-64) △박국양(의학75-81) △박석흥(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순억(치의학66-72) △박순호(AMP 43기) △박승근(조선항공63-67) △박승용(영어교육76-80) △박양수(영어교육55-59) △박영숙(CHCN 3기)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83) △박재형(의학66-72) △박종찬(공업교육71-76)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해룡(상학58-63) △박향숙(응용미술58-62) △박흥일(영어교육60-64) △배기선(AIP 25기) △배상경(경제학56-61) △배승환(기계공학58졸) △배영한(상학49-58) △배인준(철학70-74) △백형배(화학공학47-53) △변영삼(금속공학77-81) △변종문(공업교육72-76) △서광벽(재료공학73-77) △석준형(물리학67-71) △설흥기(대학원07-09) △설희순(기계공학62-66) △손두식(임학57-63) △손완주(화학공학55-59) △손환규(농업교육64-68) △송병락(경제학59-63) △송사일(농공학80-84) △송언기(AMP 28기) △송인상(경성고상35졸) △송종환(외교학64-68) △송호룡(AIC 19기) △신명준(법학80졸) △신수경(기약59-63) △신용삼(경영학73-77)	△신원식(행정학57-61) △신정균(농경제학54-58) △신필재(약학55-59) △신혜순(가정교육47-51) △신희명(물리교육49-54) △신희섭(의학68-74) △심장수(법학70-74) △심재갑(행정학52-56) △심한배(공업화학71-76) △안상돈(행정학59-63) △故안재환(공예92-04) △안치득(전자공학76-80) △안취준(고고인류61-67) △양해준(식품공학82-86) △양호석(농화학57-63) △엄영섭(화학66-70) △엄준호(기계항공95-99) △여운관(금속공학53-57) △오경화(의류학81-85) △오세종(경제학61-65) △오윤덕(행정학61-65) △오인석(전자공학57-62) △오진환(법학75-79) △오태환(법학53-57) △우병규(정치학51-55)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완식(경제학57-61) △우종호(중어중문60-64) △우효섭(토목공학72-76) △유가영(기약86-90) △유위중(농경제학72-80) △유제운(조선항공51졸) △유진무(상학62-66) △유필삼(전기공학66-73) △윤근환(농학50-54) △윤용철(경영학83-88) △윤용혁(독어교육60-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75) △윤정철(의학59-65) △윤정혜(화학교육59-63) △윤충섭(농공학55-61) △윤홍식(물리교육56-60) △이경재(화학59-63) △이계관(약학70졸) △이광진(경영학77-81) △이규호(약학60-65)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58) △이기준(경제학55-59) △이기춘(가정교육61-65) △이돈구(임학65-69) △이동규(천문기상65-74) △이미현(법학79-83) △이병목(의학54-60) △이병일(농학57-63) △이병주(의학61-67) △이삼휘(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상필(치의학70-76) △이석원(AIP 36기) △이성호(농공학71-75) △이수웅(전기공학88-92) △이승관(금속공학64-71) △이승구(계산통계75-79) △이승립(국어교육66-70) △이영상(상학51-55) △이영상(상학59-64) △이용희(간호학75졸) △이우연(정치학45-49)	△이우진(농화학64-68) △이의갑(영어교육70-75)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장무(기계공학63-67) △이재원(기약53-57) △이재원(법학77-81) △이정국(토목공학62-66) △이정숙(응용미술65-69) △이정우(독어교육64-71) △이정인(광산학59-63) △이종욱(의학57-63) △이주환(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진방(경영학67-71)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영(상학63-68) △이철주(상학59-65) △이충웅(통신공학54-58) △이학숙(회화54-58) △이현식(화학73-7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현규(정치학59-64) △이형우(수리학51-55)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미영(회화77-81) △임승빈(건축학67-71) △임이균(약학61-65) △장권봉(응용미술56-62) △장삼진(화학공학51-55)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원갑(기계공학63-67) △장윤석(법학68-72) △장은식(치의학89-93) △장찬기(HPM 8기)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해창(법학74-78) △장혜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구(경제학51-56) △전종갑(천문기상64-68) △전준수(토목공학61-65) △전팔관(영어교육47-52) △정광섭(상학66-74) △정광현(독어교육71-78) △정근화(물리교육63-70)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웅진(상학63-67) △정원식(교육학48-54) △정은구(법학58-64) △정정길(행정학61-65) △정효섭(사회학59-65) △정홍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규광(정치학48졸) △조대연(법학69-73) △조동진(행정학63-67) △조무제(사대원65-67) △조상태(수리학71-75) △조성근(행대원61졸)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	---	--	--	--	--

△조장환(농학53-60)
△조현래(사회사업73-77)
△주정엽(경영학95-02)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성박(치의학75-8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교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 연(섬유공학68-72)
△최광현(무역학62-67)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병주(생물교육56-60)
△최영룡(법학78-82)
△최우철(의학82-88)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종태(행대원66-68)
△최창신(약학61-65)
△최화순(조선공학65-70)
△최효열(기악73졸)
△탁미선희(치의학76-82)
△하두봉(대학원56-58)
△한 영(치의학79-85)
△한정섭(건축학48-52)
△한철주(의학78-84)
△함종환(농업교육63-70)
△허정국(치의학55-59)
△현덕성(약학66-70)
△현임중(상학56-60)
△홍동선(임학56-61)
△홍상희(응용물리65-72)
△홍성오(생물교육50-54)
△홍순겸(AIP 5기)
△황병선(외교학64-71)
△황성재(법학72-76)
△황승기(지구과학69-76)
◆90만원
△김승환(상학67-71)
◆84만원
△오하이오지부동창회
◆80만원
△김재현(경제학69-73)
△박남훈(외교학68-75)
△서병규(행대원88-92)
△어 당(섬유공학68-72)
△우두현(상학61-67)
△유승규(기계설계76-80)
△이인재(지질과학64-72)
△장영일(치의학64-70)
△정상명(행정학68-72)
◆70만원
△서유현(의학67-73)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윤하(제약학77-85)
△하순봉(독어교육60-64)
◆60만원
△김신원(응용화학64-72)
△부영욱(HPM 13기)
△안재휴(광산학52-56)
△안태준(기계공학83-91)
△여인철(조선공학75-79)
△유종상(중어중문66-70)
△이범구(물리학69-73)
△이상용(의학64-70)
△이용팔(HPM 13기)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정태봉(작곡72-80)
△조달호(AMP 7기)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조양태(기계공학64졸)
◆50만원
△강 민(금속공학70-74)
△강규범(AMP 62기)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윤결(기계공학53-57)
△강인식(농공학79-83)
△강일우(섬유공학71-75)
△강종호(농학60-64)
△곽소진(신대원70졸)
△곽연구(AMP 34기)
△권기술(AMP 9기)
△김 농(토목공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공환(행대원68졸)
△김기석(법학59-64)
△김남석(기계공학72-79)
△김당배(경영학70-77)
△김병관(농공학76-80)
△김봉군(국어교육60-64)
△김상도(조선공학78-82)
△김세겸(농공학59-63)
△김수학(물리학53-57)
△김순철(국사학75-82)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졸)
△김정근(수의학50-59)
△김정란(불어불문65-69)
△김정우(상학67-71)
△김정욱(금속공학58-64)
△김종호(SGS 4기)
△김지영(식품영양69-73)
△김진국(정치학78-85)
△김진욱(농학52-56)
△김차서(AMP 19기)
△김초일(식품영양78졸)
△김항원(사회교육65-72)
△남시욱(정치학54-58)
△남중희(잠사학56-60)
△류재택(역사교육66-73)
△문학모(경제학58-64)
△민병천(정치학52-56)
△박 찬(정치학75-79)
△박건호(상학59-63)
△박순철(사법학83-87)
△박시우(제약학69-73)
△박양제(약학48-52)
△박용희(상학53-57)
△박일재(화학공학78-82)
△박철홍(AMP 51기)
△박태권(토목공학55-59)
△반성환(농경제학50-55)
△배기성(독어독문68졸)
△부경생(농생물학60-64)
△손문자(응용미술62-66)
△송임숙(생물교육55-59)
△승의상(의학61-67)
△신동우(언어학71-75)
△신정택(AMP 48기)
△신철영(기계공학70-78)
△신철영(기계공학70-78)
△신한우(사회교육50-55)
△심문섭(조소61-65)

△양이훈(물리학65-74)
△양흥룡(영어교육71-79)
△오규원(행정학65-69)
△오병권(조소66-70)
△오자복(행대원82졸)
△오제국(정치학75-79)
△우경자(가정교육61-65)
△위정일(의학63-69)
△유석기(경제학57-61)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원영(상학57-63)
△유창용(의학82-88)
△윤 문(광산학61-67)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채광학50-54)
△윤영출(응용미술82-86)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근석(산업공학72-76)
△이만섭(치의학57-61)
△이상준(기계공학76-80)
△이상학(경제학59-63)
△이신기(농학58-64)
△이육현(제어계측85-89)
△이윤주(상학63-70)
△이은주(간호학90-94)
△이찬영(상학55-59)
△이춘구(생물교육54-58)
△이춘배(의학83-89)
△이평우(불어불문48-56)
△이형직(상학67-71)
△이홍석(농학52-56)
△인정현(법학54-58)
△임병주(금속공학52-56)
△임상규(금속공학68-72)
△임성규(법학76-80)
△장낙순(SGS 10기)
△장병규(섬유공학54-60)
△장순근(지질과학65-69)
△장희수(AMP 45기)
△정성호(사법학81-85)
△정이조(ACAD 48기)
△정인조(금속공학71-75)
△정태규(수의학56-60)
△정태원(농경제학57-61)
△조남혁(섬유공학57-61)
△조덕찬(상학53-57)
△조수호(회화47입)
△조영욱(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주종남(기계공학75-79)
△지형준(약학53-57)
△채경욱(경영학86-90)
△채규대(경제학56-60)
△채기원(수학53-59)
△채방은(기계공학65-70)
△최동수(경영학65-70)
△최병선(조선항공60-64)
△최순철(치의학73-79)
△최운열(경영학70-74)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창호(사법학84-88)
△최현수(전기공학76졸)

△최흥락(경제학57-61)
△한득주(행정학59졸)
△한상복(물리학59-63)
△한정길(농생물학63-70)
△함준표(경제학79-86)
△홍석주(경영학72-76)
△홍선표(기계공학53-57)
△황건호(경영학70-74)
△황인경(식품영양70-74)
△황정자(가정교육63-67)
△황현익(교대원65졸)
◆45만원
△오봉국(축산학48-52)
◆40만원
△강만식(생물학51-55)
△곽노희(기악81-85)
△김 유(약학60-64)
△김광현(의학66-72)
△김문기(기계설계77-81)
△김병익(정치학57-61)
△김적성(사대원69졸)
△김정목(농생물학59-65)
△김주영(사법학83-87)
△김창윤(수의학53-57)
△김형선(법학57-62)
△노선호(AMP 24기)
△목요상(법학55-61)
△문성철(상학54-58)
△문양수(언어학59-63)
△문창환(기계설계75-79)
△박우병(광산학52-56)
△박정부(AMP 61기)
△박창진(보대원70-72)
△사공일(상학58-64)
△서완수(농경제학58-64)
△신동수(국사학82-89)
△여효성(대학원03-05)
△연대성(영어교육60-64)
△우보명(임학57-61)
△유기수(물리학53-57)
△유동립(공업교육68-72)
△이계욱(무역학62-67)
△이기상(의학73-79)
△이대원(상학59-65)
△이도전(임학55-60)
△이병상(사회학61-65)
△이부영(의학52-59)
△이영욱(법학52-56)
△이재숙(국악59-63)
△이재원(법학76-80)
△이종휘(경영학66-70)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현정(임학64-71)
△이혜전(기악79-83)
△이희달(금속공학70-77)
△이희주(가정교육56-60)
△이희주(치의학67-73)
△임성수(치의학60-66)
△임재원(국악76-80)
△임창무(경제학53-57)
△장만화(경제학56-61)
△장정환(정치학56-63)
△전광우(경제학69-73)

△정강주(체육교육69-74)
△정건용(치의학52-57)
△정문성(의학78-84)
△정송학(ACAD 54기)
△정수현(교육학80-84)
△정원박(대학원74-81)
△주영재(공업교육72-76)
△최상태(행정학58-64)
△최성규(국사학92-99)
△한광세(법학60-64)
◆35만원
△모영일(AFB 5기)
△우성규(사학63-70)
〈이상 2005년 10월 1일
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30만원
△간영석(법학57-61)
△강 건(약학60-66)
△강남원(기계설계75-81)
△강만수(법학65-69)
△강명영(AIP 20기)
△강민창(신대원68-70)
△강부건(건축학62-69)
△강수현(상학58-62)
△강승림(지리학62-66)
△강신우(법학79-83)
△강신일(의학58-64)
△강신자(작곡56-60)
△강영삼(사회교육59-63)
△강의철(건축학73-77)
△강진영(의학67-73)
△강창수(조선공학48-53)
△강태석(상학51-55)
△강태형(법학57-61)
△강해석(제약학71-78)
△강호익(토목공학58-64)
△고건성(의학67-74)
△고명삼(전기공학51-55)
△고상언(AIP 11기)
△고승혜(회화66-70)
△고영곤(농경제학66-70)
△고영희(건축학77-81)
△고재홍(자원공학75-82)
△고정택(외교학62-66)
△고충삼(행대원63-65)
△공영석(약학57졸)
△공영주(약학59-63)
△곽광준(SGS 14기)
△곽노준(법학74-78)
△곽영철(농공학59-65)
△곽현수(법학72-76)
△구분우(농공학62-66)
△구성희(보대원67-69)
△구인환(국어교육50-54)
△구자영(조선항공54-58)
△구자희(법학77-83)
△국전표(토목공학60-66)
△권기진(HPM 8기)
△권영수(경영학75-79)
△권오균(경제학49-53)

△권오득(사회사업63-68)
△권오윤(법학56-60)
△권오준(임학65-69)
△권장혁(항공공학67-71)
△금명자(간호학76-80)
△금종해(수학76-80)
△김 랑(농공학63-68)
△김경동(사회학55-59)
△김경화(건축학65-69)
△김관영(화학교육55졸)
△김광순(약학59-63)
△김광식(화학59-63)
△김광호(농학61-65)
△김광희(작곡68-72)
△김구수(의학71-77)
△김구웅(수학57-63)
△김권택(법학63-67)
△김규상(화학57입)
△김규호(약학64-72)
△김근배(조선항공64-68)
△김금환(건축학72-77)
△김기락(의학68-76)
△김기주(사학54-58)
△김기중(상학57-61)
△김남수(물리학73-77)
△김남용(축산학53-57)
△김남조(국어교육47-51)
△김대기(외교학65-69)
△김대환(기악89-93)
△김덕수(섬유공학51-55)
△김덕창(중어중문59-63)
△김동길(화학교육57-61)
△김동녕(경제학64-68)
△김동암(축산학52-56)
△김동완(행대원83-88)
△김동원(법학52-56)
△김동철(독어독문78-82)
△김만경(경제학53-57)
△김만복(법학66-70)
△김명근(건축학53-57)
△김명년(토목공학53-57)
△김명린(조선항공61-65)
△김명석(요업공학74-79)
△김무현(건축학61-65)
△김미리(간호학55-58)
△김민영(사학68-71)
△김병국(의학64-70)
△김병기(광산학65-69)
△김병동(농학62-66)
△김병준(지구과학68-72)
△김병찬(의학53-60)
△김병찬(치의학69-75)
△김복순(간호학55졸)
△김복승(APC 3기)
△김봉호(치의학56-60)
△김부성(지리학73-77)
△김상국(농학51-56)
△김상근(법학78-82)
△김상기(국어교육65-69)
△김상진(기계공학63-68)
△김상현(ACAD 27기)
△김상호(중어중문58-62)
△김상희(법학69-73)
△김서령(수학교육78-82)
△김석수(자원공학77졸)
△김석용(대학원81졸)
△김석주(조선항공48-54)
△김선양(교육학53-57)
△김선일(국어국문61-65)
△김선홍(기계공학55졸)
△김성길(법학60-64)

△김성만(금속공학57-61)	△김창세(화학공학61-65)	△박귀원(의학66-72)	△방효선(정치학51-55)	△신규대(법학56-60)	△원종환(건축학52-56)
△김성수(치의학67-74)	△김창수(상학66-70)	△박금철(화학공학48-51)	△배기은(화학공학57졸)	△신동수(토목공학52-56)	△위기철(경제학59-66)
△김성중(광신학59-66)	△김창식(사대원67-69)	△박금환(생물학59-98)	△배길훈(철학65-70)	△신동식(원자핵공72-77)	△유기홍(법학58-64)
△김성진(식품영양69-73)	△김창호(산업공학72-76)	△박길상(사회학72-76)	△배용재(법학74-78)	△신동주(원자핵공79-83)	△유도봉(약학66-74)
△김세제(동물학85졸)	△김천수(생물교육63졸)	△박동서(토목공학61-65)	△배준동(불어불문79-83)	△신동철(화학교육59-63)	△유동준(잠사학56-60)
△김세진(치의학67-73)	△김철수(경제학77-81)	△박동우(농공학70-74)	△배창모(상학59-64)	△신명균(법학62-66)	△유명철(의학61-67)
△김소함(기약77졸)	△김철중(물리학70-74)	△박동정(전기공학54졸)	△백세웅(법학64-68)	△신명철(농업교육63-67)	△유봉우(기약74-78)
△김수관(생물교육70-78)	△김철진(법학50-58)	△박동현(의학70-76)	△백우현(경영학74-78)	△신명호(행정학62-66)	△유숙자(간호학59-63)
△김수필(경영학62-66)	△김충경(약학65-69)	△박관정(가정관리80졸)	△백운택(영어교육63졸)	△신부길(농화학63-67)	△유영덕(GLP 7기)
△김승규(SGS 7기)	△김충식(독어교육60-64)	△박만기(약학59-63)	△백정환(경제학61-65)	△신성국(법학73-79)	△유영일(상학53-57)
△김승호(법학62-66)	△김탁현(농학65-69)	△박문갑(의학46-53)	△백창기(상학61-65)	△신우식(영어영문53-57)	△유왕성(의학75-81)
△김신택(법학57-62)	△김태두(경제학50-56)	△박문희(간호학59-63)	△백청심(기약71졸)	△신인식(법학74-78)	△유용선(금속공학57-61)
△김영규(경제학55-59)	△김태수(영어영문57-64)	△박병대(법학76-80)	△백대진(의학74-80)	△신현명(경제학62-66)	△유원규(법학71-75)
△김영대(SGS 12기)	△김태수(지질과학62-66)	△박상균(치의학66-73)	△변기정(치의학65-71)	△신현학(약학56-61)	△유인광(수의학81-85)
△김영무(법학60-64)	△김태완(ACAD 44기)	△박상동(HPM 2기)	△변원일(종교학67-76)	△신훈철(화학공학47-51)	△유재소(토목공학59-65)
△김영상(법학54-59)	△김태우(법학73-77)	△박상용(의학57-63)	△변정환(대학원81-85)	△심 훈(경제학60-66)	△유재운(기계공학78-82)
△김영철(건축학59-63)	△김태훈(토목공학72-76)	△박성권(수의학74-78)	△부삼환(치의학58-64)	△심대평(경제학60-66)	△유정열(기계공학65-69)
△김영한(사학62-66)	△김태희(금속공학65-69)	△박성동(경제학57-61)	△서경석(행정학67-71)	△심옥진(토목공학61-65)	△유제인(기계설계73-79)
△김영훈(행정학54-59)	△김하준(과학교육73-77)	△박세만(경제학45-49)	△서경석(화학공학56졸)	△심우영(행정학59-64)	△유태연(의학54-60)
△김완주(정치학66-70)	△김학근(법학75-79)	△박송자(화학교육63-67)	△서경필(의학57졸)	△심윤식(화학공학68-72)	△유형식(치의학59-65)
△김용구(농학57-61)	△김학순(의학74-80)	△박수기(상학54-58)	△서관석(HPM 2기)	△심재덕(잠사학57-63)	△육근열(행정학81-88)
△김용균(법학73-77)	△김한길(약학59-63)	△박순국(사회사업59-63)	△서광하(법학56-60)	△심재선(상학59-64)	△윤 식(정치학58-64)
△김우전(AMP 7기)	△김한주(약학57-61)	△박순조(임학55-61)	△서교일(의학78-84)	△심정구(경제학53-57)	△윤경숙(제약학87-91)
△김원길(경제학61-68)	△김현수(농학55-62)	△박신구(화학공학64-68)	△서돈양(법학56-60)	△안경태(경영학71-75)	△윤교중(행정학65-72)
△김원동(의학63-69)	△김현순(법학54-58)	△박양자(농가정학60-64)	△서복현(법학76-80)	△안기원(기계공학68-70)	△윤덕보(HPM 1기)
△김원배(토목공학55-59)	△김형배(행정학51-55)	△박영민(체육교육62-66)	△서선호(SGS 4기)	△안상수(체육교육71-75)	△윤도중(약학58-62)
△김원태(법학61-65)	△김형영(경제학56-60)	△박영배(약학63-67)	△서승일(행정학67-71)	△안상함(무역학77-81)	△윤명중(정치학53-57)
△김유원(신대원72-74)	△김혜삼(AMP 51기)	△박영일(무역학59-63)	△서옥식(동양사학69-73)	△안성우(AMP 46기)	△윤봉순(전기공학54-58)
△김유인(농생물학63-70)	△김호수(금속공학63-67)	△박옥련(치의학53-57)	△서완수(농경제학58-64)	△안소연(공예89-93)	△윤상탈(농경제학57-63)
△김윤영(치의학58-62)	△김홍석(치의학57-61)	△박용환(경영학72-76)	△서원태(법학67-72)	△안영문(법학71-75)	△윤승로(약학56졸)
△김윤종(AIP 31기)	△김화규(물리학52-56)	△박우규(토목공학70-75)	△서정기(치의학60-66)	△안임수(영어교육65-69)	△윤승하(조선공학75-79)
△김응진(대학원49졸)	△김희상(외교학69-73)	△박원구(섬유공학73-77)	△서정진(법학58-62)	△안재숙(농공학48-53)	△윤여두(농공학67-71)
△김익영(횡대원68졸)	△김희수(화학교육70-75)	△박원길(보대원65-67)	△서정희(경영학78-82)	△안재천(상학56-61)	△윤영조(기약85-89)
△김인수(치의학47-51)	△김희주(의학71-77)	△박원표(법학70-76)	△서주성(상학44-47)	△안택수(정치학62-66)	△윤우진(상학61-65)
△김장연(공업화학76-80)	△나병삼(지리교육64-68)	△박유재(AMP 9기)	△서진근(광신학53-58)	△양 명(AIP 9기)	△윤일영(법학52-56)
△김재길(법학56-60)	△나형용(금속공학54-58)	△박인수(성악59-68)	△서태식(경제학58-63)	△양남식(지구과학73-77)	△윤종현(상학44-46)
△김재덕(법학73-77)	△남대우(경제학58-64)	△박재권(법학66-73)	△서학령(AMPP 7기)	△양상덕(치의학77-83)	△윤지원(상학59-65)
△김재실(수학63-68)	△남송현(의학70-78)	△박재범(경제학54-58)	△석세조(수의학50-54)	△양세련(경제학92-97)	△윤화중(수의학54-58)
△김재철(법학57-61)	△남승우(치의학63-69)	△박정석(토목공학73-77)	△선석문(금속공학68-72)	△양승우(경영학68-72)	△이 인(식품동물01-08)
△김재철(상학60-66)	△남창렬(화학교육65-69)	△박정수(농공학61-69)	△선우대환(의학71-77)	△양영준(법학72-77)	△이강남(수의학66-74)
△김재훈(법학76-80)	△남혜숙(회화62-66)	△박종규(정치학55-61)	△선우정호(건축학61-66)	△양유식(치의학70-74)	△이건우(기계공학74-78)
△김정근(기계공학57-61)	△노갑기(영어교육66-70)	△박종길(약학71-75)	△설재훈(토목공학74-78)	△양인평(법학60-64)	△이건중(법학72-76)
△김정문(지구과학70-77)	△노경래(법학61-65)	△박종달(체육교육49입)	△성낙정(전기공학48-54)	△양태운(FIP 4기)	△이건호(농경제학67-72)
△김정민(AFB 2기)	△노연상(화학공학70-74)	△박종대(조소62-67)	△성상철(의학67-73)	△양현승(토목공학58-62)	△이경우(법학76-83)
△김정석(공예89-93)	△노형민(기계설계73-77)	△박종덕(법학56-61)	△성주형(행정학58-63)	△양흥준(화학공학65-69)	△이경의(AIC 5기)
△김정자(치의학59-65)	△노희찬(ACAD 33기)	△박종명(공업화학75-79)	△성진근(농경제학64-68)	△양희일(치의학56-60)	△이경형(사회학66-70)
△김정홍(화학교육57-61)	△도준호(철학61-65)	△박종영(SGS 10기)	△성패문(법학60-64)	△엄신흙(HPM 14기)	△이계수(섬유공학63-67)
△김정희(간호학52-55)	△류시열(법학57-61)	△박종영(의학72-78)	△성하정(수의학81-85)	△엄정식(신대원71졸)	△이계용(ABP 2기)
△김제영(건축학71-76)	△류해주(상학65-69)	△박종오(영어영문55-60)	△성하현(상학59-63)	△엄현택(사회학75-79)	△이관수(전기공학68-72)
△김종만(의학51-59)	△류희근(HPM 4기)	△박종일(조선항공47-51)	△성화경(가정교육59-63)	△여동영(법학60-64)	△이광노(건축학47-51)
△김종민(AMPP 4기)	△명로승(법학65-69)	△박종훈(경성약전47졸)	△소병수(사회학76-80)	△연기호(횡대원67-70)	△이광우(의학76졸)
△김종식(기계공학77-84)	△문동민(화학공학57-61)	△박준창(공대전문47-49)	△손 욱(기계공학63-67)	△염병대(토목공학65-69)	△이광재(대학원78입)
△김종연(ACAD 29기)	△문영도(경제학50-59)	△박준현(법학71-75)	△손경애(보대원74-76)	△염사연(화학공학64-71)	△이광찬(사회학58-62)
△김종욱(섬유공학61-65)	△문영학(토목공학65-70)	△박진영(지리교육55-59)	△손근찬(의학52-58)	△오국진(HPM 5기)	△이규석(지구과학66-73)
△김종일(법학52-56)	△문운용(상학60-65)	△박진원(산업공학71-75)	△손무익(전기공학68-76)	△오병남(미학59-63)	△이규성(경제학58-63)
△김종진(물리학58-62)	△문원호(약학65-69)	△박찬구(국어교육56-60)	△손영섭(법학75-79)	△오상봉(경제학70-74)	△이규찬(보대원63-65)
△김종훈(건축학69-73)	△문철명(축산학60-68)	△박찬웅(의학54-60)	△손우태(토목공학65-69)	△오선차량(수학62-66)	△이기배(법학71-75)
△김주봉(수학교육54-58)	△문헌일(AIC 6기)	△박준영(치의학60졸)	△손인희(가정관리72-76)	△오성중(역사교육58-62)	△이기태(불어교육59-65)
△김주일(의대전문44-48)	△문형근(대학원79-81)	△박항률(회화70-74)	△손주은(서양사학81-87)	△오세승(농학53-57)	△이남우(국제경제82-86)
△김주호(전기공학58졸)	△문홍장(경영학74-78)	△박행운(치의학56-60)	△손창수(AMP 41기)	△오세정(물리학71-75)	△이달우(전기공학48-53)
△김주환(치의학47졸)	△민경식(전기공학50-55)	△박현두(상학58-64)	△송국현(경제학56-62)	△오세중(철학79-91)	△이대순(법학53-57)
△김진동(국어국문58-64)	△민병덕(치의학64-70)	△박현상(법학76-80)	△송규정(사학63-67)	△오영표(공법학85-93)	◆10만원
△김진문(경제학59-64)	△민수광(법학60-64)	△박현수(경영학70-77)	△송복희(응용미술74-78)	△오옥수(금속공학62-72)	△김정웅(경제학60-64)
△김진석(농업교육69-75)	△민신희(약학60-64)	△박홍춘(화학공학71-75)	△송삼석(경제학46-52)	△오장수(화학공학74-78)	△민경덕(기계공학82-86)
△김진영(건축학68-72)	△민영기(물리학57-61)	△박황호(항공공학65-69)	△송세안(화학79졸)	△오재희(정치학53-57)	△박영희(식품영양70-74)
△김진우(경제학59-63)	△박 실(정치학58-63)	△박효일(의학58-64)	△송인종(행정학56-60)	△우성일(의학77-83)	△박재현(법학00-05)
△김진우(행정학57졸)	△박강문(국어교육63-68)	△박흥식(수학66-70)	△송영태(경영학69-76)	△우의제(경제학63-67)	△이은혜(수학87-91)
△김진철(항공공학67-72)	△박경석(사학55-59)	△박희숙(국어교육56-60)	△송종의(법학59-64)	△우찬목(상학55-59)	△이현석(기계항공99-08)
△김찬조(농화학49-54)	△박경엽(전기공학75-79)	△반장식(횡대원83졸)	△송희승(의학53-59)	△원상희(의학75-81)	(이상 2009년 10월 24일
△김창복(법학51-55)	△박광태(산업공학80-84)	△방달호(치의학58-63)	△신광순(수의학52-56)	△원우식(경제학52-56)	부터 11월 23일까지 출연해
△김창성(원예학81-88)	△박국수(법학67-71)	△방정섭(기계공학62-69)	△신국범(건축학50-56)	△원윤상(조선공학76-80)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9년 10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9. 10. 1.~11. 23)·일반(09. 10. 1.~11. 23)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회 장 林光洙= 5백만원
△상임부회장 孫一根= 1백만원
△부회장 李相周= 50만원
△부회장 河權益= 1백만원
△부회장 李鍾基= 1백만원
△부회장 具本俊= 1백만원
△감 사 朴英俊= 30만원

상임이사

△咸鍾漢 교대원동창회장= 20만원
△金基炳 행대원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창희 농대66
△권오준 공대68 △권훈정 생활82
△김병일 문리64 △김시학 AMP40
△남궁원 문리61 △남원식 공대70
△민준기 인문79 △박세화 공대84
△박정혁 의대88 △백준기 공대80
△성기호 의대60 △우성봉 농대79
△윤석룡 농대64 △윤정섭 SGS4
△이기호 AMFR12 △이보환 법대61
△이정순 문리64 △임동신 공대66
△임인재 AMP10 △전동원 의대58
△정영진 법대84 △정우택 AIP5
△정의중 치대65 △정종훈 농대77
△조가운 법대60 △최종성 의대69
△최철규 공대79 △한상돈 미대81
△홍현식 치대82

(일반) △강기원 법대60
△강동환 미대99 △강승구 GLP14

△강용규 ACAD66 △고민정 법대98
△구회옥 미대94 △김경숙 AMFR23
△김명자 미대59 △김미숙 의대84
△김상수 인문90 △김수완 사회92
△김연배 공대87 △김원주 수의97
△김종훈 자연01 △김지훈 음대01
△김찬록 문리66 △김형태 ALP8
△김혜원 미대80 △김홍선 SGS17
△노경아 사대99 △노창호 SPAR10
△문정일 법대84 △민수홍 공대95
△민주석 농대80 △박광운 사회93
△박병훈 법대61 △박성환 SPAR8
△선경순 CHCN9 △손일석 문리56
△신승근 공대64 △신의수 치대00
△안계수 자연78 △안순권 사회77
△양강현 법대84 △양영진 國院04
△엄성호 AFB8 △오대훈 경영01
△유시락 사대57 △유종욱 문리57
△윤용하 자연84 △이광진 법대77
△이금라 간호70 △이대웅 공대06
△이상욱 경영86 △이선중 AMP44
△이원기 공대04 △이윤석 치대92
△이재술 大院82 △이재우 ASP7
△이재호 經院68 △이전제 농대70
△이하운 법대03 △임치영 공대87
△장성호 공대94 △전용갑 SPAR14
△정구조 사대55 △정길수 공대76
△정제현 간호03 △정혜주 사대56
△정홍화 법대81 △주정대 經院90
△전낙봉 법대80 △전한성 공대05
△최병례 HPM21 △최윤미 공대99
△최정희 SGS22 △황성훈 공대02
△황우권 新院72 △황인근 농대87

이 사

◆인문대 △강창일71 △원종례73
◆사회대 △김형민76 △원표희73

△이중현73 △정봉교72 △정혜영72
△황정욱85
◆자연대 △김성욱76 △정현미82
◆경영대 △남진웅76
◆공대 △구창용60 △김병길64
△김성환66 △김용원70 △김주홍47
△김태준57 △남일순81 △남장수64
△박상진69 △박일후61 △백승욱58
△서남규69 △서정만64 △서태석76
△손중권71 △송병록78 △양기정67
△여인갑64 △이건우74 △이계환62
△이금석59 △이동춘53 △이순병68
△이시우65 △이영무74 △이장무63
△이종대78 △이종훈53 △이희영76
△장광훈78 △전웅진64 △최순철39
△최우영79
◆농대 △권상팔64 △김완기65
△김진오69 △나찬희73 △이시규73
△이영래63 △이원덕80 △이홍기67
△정봉진73 △최승호83 △최영규65
△홍성표56
◆문리대 △권민웅62 △김 명67
△김문환64 △송대성69 △안병균67
△이영훈64 △이정수59 △정소성64
△정용두53 △전승걸58
◆미대 △조성애64
◆법대 △김능환71 △김세돈72
△김영훈54 △김정보67 △김제완81
△김종구59 △김준규75 △김진관71
△김진우52 △민수광60 △박기태76
△박종성73 △서정신58 △선우종원41
△이근식65 △이승섭77 △이정락58
△임태수56 △장기욱67 △전응진49
△조승근70 △조용준79 △조현우68
△한경구61 △현순도66 △황의인74
◆사대 △강영삼59 △김주화65
△김홍섭73 △문영식73 △이경복69
△이규석66 △인병식61 △최태상53

△한도연49
◆상대 △고경식61 △김용균65
△박성석61 △박찬문53 △신남휴62
△위기철59 △이계문70 △이남수62
△이용휘57 △이정재65 △조문규57
△황건호70
◆수의대 △김창수64 △나기식54
△신현일57 △이기주61 △이상만48
△이원철74
◆약대 △원용한78 △유재은61
△이해정46 △장학순47 △정연심54
△지현석56
◆음대 △이창수67
◆의대 △김종화63 △문성무60
△최승순80 △추연명73 △한홍무56
◆치대 △김상철73 △김한경63
△양수정83 △이만선66 △정형남62
◆대학원 △문두길87
◆교대원 △송항섭64
◆보대원 △권혁한75 △김덕성71
△박원길65
◆신대원 △김태문71 △유일연72
△정대수61
◆행대원 △노일숙79 △박우순76
△오형국85 △유정복86 △현경병85
◆현대원 △석영철71 △황길연94
◆AMP △이경태31 △이상복41
△이태교4 △정건택21
◆AIP △김석겸56 △송기은19
◆ACAD △이종간55
◆SGS △오인철8 △이래원6
◆APC △조성출5
◆HPM △성치용4 △윤귀남5
△허 결12
◆AIC △김석희3 △류진국1
△박경숙8
◆ACPM P △이영수3
◆GLP △김 설8

일 반

◆인문대 △권호중78 △박병진84
△박정진04 △송재중74 △신중진92
△유국환81 △이백순82 △이영인77
△임석원92 △정준모89 △정혜경83
△조현삼00 △조홍찬99
◆사회대 △강지운03 △김택인82
△김동현00 △김만흠76 △김병현98
△김상철01 △김현종89 △김형기72
△김형일83 △박찬호79 △이길호85
△이성탁72 △이윤희00 △장경영92
△정기철73 △정선용84 △주명훈90
△진정규99
◆자연대 △김경윤89 △김미현04
△김종현83 △김진규78 △김진석76
△서진옥91 △송효종00 △유영만84
△이 다87 △이종구66 △이호선96
△최순규87 △최영준85 △최한구82
△최효진00
◆간호대 △김을자64 △김현미89
△김희진93 △오현숙83 △이상영99
△이순임75 △이은숙80
◆경영대 △공승남92 △김지현88
△김태암82 △노희용82 △모과균84
△박동원77 △신진창88 △이태홍94
△전기환83
◆공대 △강문석94 △강봉돈71
△강태갑59 △강태호06 △강희창83
△고봉석67 △곽병현67 △곽영명62
△곽찬문03 △권용원80 △권희덕71
△김광형01 △김길호82 △김덕원72
△김동호75 △김병국68 △김상돈56
△김상환73 △김언기05 △김여근72
△김엽동52 △김용근60 △김인달70
△김인영72 △김재한54 △김재홍99
△김통호70 △김휘중64 △문대영04
△박봉철83 △박찬익89 △서준원96
△송영현04 △신원종71 △신효순57
△심재진76 △심진보02 △심혜원99
△안용수73 △안홍삼63 △염영진97
△오세범00 △오수원83 △오영환68
△오철석55 △원경식77 △유귀환56
△유종오94 △윤영인80 △이광복67
△이근호67 △이세열78 △이연태00
△이용욱02 △이인재67 △이현규81

△임현태78 △장석호65 △전구현54
△정병창71 △정상구73 △정원배59
△정진건64 △정대훈75 △제해찬74
△조동기93 △조동형61 △조승제56
△조흥구68 △지대용51 △진행섭66
△최용준99 △최효석99 △하규성76
△하상원85 △한영철74 △현봉섭49
△홍영락80 △황인준95
◆농대 △강정일64 △고만기77
△관대걸57 △김기철91 △김숙자62
△김영식66 △김용하79 △김재웅63
△김재인62 △김종호84 △김진수00
△김현정00 △맹수철83 △박용제67
△박정원56 △박종문64 △박종선73
△박종효58 △배동호59 △배정웅64
△백현준61 △서정택67 △손성호58
△송환장46 △엄병헌84 △연장식84
△오종환60 △우종원66 △우창명66
△윤병근75 △이기복53 △이봉수58
△이선진69 △이원희73 △이재환81
△임성자77 △장우상63 △정경진55
△정연흥57 △정재용79 △정진영04
△정해각55 △조빈형58 △최선대59
△최재복54 △한휘석57 △홍영기81
△황영자59
◆문리대 △고병국46 △고상빈50
△고석진57 △고인석56 △김민욱59
△김상무60 △김세중64 △김현철57
△나기웅70 △서광식59 △신중성70
△안한수69 △양 원55 △원인기66
△유준재61 △윤영호70 △윤태호66
△이선숙69 △이수천65 △이영훈65
△인오룡70 △정미자71 △정용승58
△정의성57 △정대철55 △최 웅69
△최인승58 △한영희70 △황경구57
△황봉운58
◆미대 △계동훈59 △김기미81
△김덕용81 △김미혜78 △유영준58
◆법대 △강구태80 △고건호78
△김 훈82 △김광훈79 △김두표69
△김범수82 △김시형58 △김종성67
△김종욱84 △김종윤71 △김형두52
△도지훈52 △박광전81 △박승준80
△박재현00 △서동희80 △성달용60
△손우창94 △신원국94 △신현수78
△안종혁61 △안철환57 △양명조69
△양희수62 △오동근87 △우종균81

△원윤목55 △유상순76 △윤백영56
△윤석상82 △윤정석55 △이건개59
△이국희02 △이동렬68 △이승관78
△이양수82 △이영규87 △임대규74
△임도빈65 △임영환86 △장경미99
△장선섭54 △전수철63 △정용식58
△조승우94 △조영삼81 △조흥식82
△최상원82 △한봉수49 △홍성필89
△황성운87 △황성일56
◆사대 △구수연87 △김기려02
△김성태54 △김세영46 △김영철64
△김용식80 △김은숙51 △김종훈79
△김필수57 △김필태80 △김현곤59
△문정대53 △문정환59 △민동주89
△박종대52 △박혜준91 △박희동75
△배신영04 △배영철79 △백승용86
△백준현97 △석종복72 △손낙철49
△신각범54 △심상석58 △여태철84
△오세왕67 △우상혁56 △유영선86
△이방렬65 △이보식53 △이재완72
△이종현05 △이주옥97 △이진구71
△이현순53 △임수진84 △전쌍식87
△정인상72 △조병완53 △조선형59
△채미영82 △최성재85 △최성희94
△함종규46 △황 주82 △황종복66
◆상대 △강종우62 △권만식65
△권혁조53 △권혁대49 △김 택52
△김용민70 △김용일68 △김준현71
△김태구59 △박두섭56 △박인규70
△박종한49 △성락후63 △손경수56
△오세환68 △이동재54 △이승로49
△이종렬49 △이찬구56 △임종수70
△조성일62 △최제현49 △탁승호65
△하명근66 △한정기69 △홍순호62
◆생활대 △강은영84 △박순이74
△이신영82 △조정애57 △강영애82
△이지현04 △조지은95
◆수의대 △강상욱90 △강인구59
△김남식83 △김동환82 △류기승60
△박승도66 △방효범55 △서창우63
△손태영49 △신광호67 △안환길64
△양진건85 △이경환60 △이종석53
△이호선92 △임준기77 △조성훈67
△조영선78 △최정철62 △최찬영66
◆약대 △김신일60 △김종수57
△남충우62 △윤광수69 △윤홍중55
△이갑열53 △이강주54 △이애영56

△이진희02 △정은희82 △조철원59
△최기철53
◆음대 △고윤화98 △김미경81
△박미애81 △박상영94 △박은경83
△박정배53 △양귀애69 △유신선79
△이아람04 △이정화89 △이효순63
△정예경02 △정혜선81
◆의대 △곽계혁96 △김수길66
△김운식69 △김원희05 △김정재81
△김종신56 △김청수68 △양승오75
△유병철71 △유소영93 △윤경선63
△이원기56 △이창원85 △이훈용72
△장경만80
◆치대 △고진수58 △김기수78
△김길태65 △김능세70 △김선일58
△김영호58 △김의배52 △김창희62
△김효정00 △명동성61 △문창남58
△박세운86 △손일수71 △안순찬83
△윤태호82 △이배진59 △이수연00
△이영훈78 △이용덕81 △이유식74
△이장훈57 △이종오76 △주관철59
△주수광55 △최세원77 △최인선82
△황현상77
◆대학원 △구보용83 △김봉환83
△김상열86 △송강영91 △송윤경96
△윤도순84 △이상용88 △이용범82
△추용식91
◆경대원 △신길수68 △이해동67
△정일채67
◆교대원 △심수정71
◆보대원 △김민철99 △박승기82
△조준국84 △최지원97
◆신대원 △변정민73
◆행대원 △고윤환84 △정강정85
△홍현선77
◆현대원 △이정택02 △최갑대82
◆AMP △고상환9 △곽덕근54
△권광태60 △권오형61 △김광현55
△김규성44 △김기탁18 △김병훈56
△김우구65 △김응열25 △김진오50
△김태웅48 △김홍식31 △나세찬65
△류동현57 △박근학51 △박세원19
△박인종25 △박종구21 △변명섭67
△서준희63 △성백환36 △손성섭43
△송문호38 △신성택38 △안종표36
△오상수39 △오일량30 △유병운23
△유종석57 △유준웅31 △윤용암66

△이반우52 △이범식37 △이상갑25
△이영희30 △이응직50 △이정복60
△이종학13 △이찬국46 △이창호37
△이한규23 △이행기48 △이현섭22
△장민기54 △정만우50 △정성균67
△정원민13 △정하덕23 △조규진66
△조문규51 △지대섭56 △채문표63
△최영수46 △한명호66 △한주우66
△홍연우54
◆AIP △고귀선19 △구재관40
△권오열22 △김광순37 △김명호40
△김서규40 △김순택6 △김신탁3
△김연우41 △김정원18 △김진수29
△김태규41 △김형일41 △김휘중41
△노영우41 △문일권39 △박상언41
△박세규32 △박종준41 △신용기9
△신정식13 △오동식41 △이명래19
△이일재41 △이종철41 △이전억41
△임영근40 △정영계33 △정일균41
△조일래41 △조희진40 △최일문35
△홍사혁41
◆ACAD △강동화68 △고재정30
△김 진65 △김광수68 △김진태27
△노희식38 △박권섭56 △박선민25
△박용암43 △서형교67 △송용식63
△오시철7 △유내형17 △윤대식10
△이관범20 △이관영2 △이길재66
△이문용27 △이범진48 △이병국68
△이상태63 △이양호18 △이종석61
△이효구62 △정민근62 △조현형35
△최종구62 △최철규68 △최형대68
△한성열67 △한정희11 △황상모66
◆ABP △김영수26 △김정택23
△김현운20 △노반석33 △박길태11
△박현철10 △이영진5 △전정택18
△정공훈22 △정석호19
◆SGS △민경엽1 △민상금1
△박건동7 △서보상19 △신천식16
△양동기3 △양재형22 △윤 건4
△임창규16 △장현수3 △정평화6
△최상석2 △최호운18 △한상용6
◆CHCN △조흥자12
◆APC △강영호6 △김상규6
△이재덕5 △정규완7
◆HPM △곽정욱24 △김광화9
△김재중22 △문성호21 △배금자24
△배영봉14 △손의섭22 △양동근12

△이영태14 △정철우24 △정희순14
△채상식17
◆AMPP △김명남5 △안창호9
△임학운9 △홍 근7
◆AIC △강경원23 △권택용27
△김백순27 △박 훈12 △박종원12
△서용희5 △윤종목17 △이국세12
△이영훈11 △이재학27 △이찬주26
△전 진5 △정재균2 △조익현22
△최주달3
◆AFB △김기호8 △김명호2
△손수근8 △정진녀6
◆AMPFRI △안홍자22 △이유인7
△장선희23 △조봉기1 △허남준10
◆ACPM △남춘우4 △윤단근5
△김세민4 △김유진3 △김임배2
△김태용2 △장진근4
◆FIP △고영수2 △박상기5
◆GLP △고희권19 △김대근19
△김병철17 △김옥정10 △김일연11
△김종길19 △박준구4 △방효준19
△서승욱19 △오석송19 △은철기18
△이용섭18 △이재환16 △이창의14
△임범식19 △임순길18 △조호현14
◆ALP △김찬경10 △김호동5
△노연길10 △변 강2 △소윤수10
△손석대10 △안종만3 △이성현9
△이정환3 △허광옥10 △황우엽9
◆ANMP △윤문숙5 △이영선6
△이향우5 △이희경6
◆SPARC △남동환2 △이환채6
◆AFP △송인화2 △이광만4
△이돈구4 △이은희4 △이종성4
△최두주4 △최병원3 △최옥현4
◆ASP △강지현14 △고금순9
△김기진8 △김재복10 △김종배11
△김종수17 △김진호1 △남삼현11
△손영국6 △오세일17 △이재덕4
△채수철15

10 월 계 : 24,350,000원
평생회비 : 33,900,000원
입 회 비 : 400,000원
총 계 : 1,143,364,776원